

- 28 *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29 *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30 이러한 세가지 신념은 영적 분별에서 발생하는 영구적인 질문에 대한 우리의
 31 반응의 기본이 됩니다.³
 32 *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는가?
 33 * 이 구원의 계시는 무엇을 소망하게 하는가?
 34 * 이 능력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부르시는가?

35 **신학적 반영: 21 세기의 21 세기를 위한**
 36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분별**

37 **A.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음의 기초**

38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39 받는 구원의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크리스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40 1. 장로교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에
 41 중심을 두고 있는데-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의 하나님, 그 사랑과 공의가 모든
 42 피조물에게 미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43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다가 찾은후 기뻐하는 여인처럼,
 44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방탕한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눅
 45 15 장)

46 니케아 신조가 가르치는 것 처럼,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47 영원하신 아버지, 아들, 성령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은 교회의
 48 고백적인 전통을 통하여 전수되며, 삼위일체 신앙의 갱신은 오늘날의 신학의 주된
 49 주제이기도 합니다. 장로교인들은 그 신념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50 고백들을 우러러 봅니다. 본 위원회는 신앙의 이러한 가장 중추적인 헌신을 항상
 51 계속할 것을 권합니다.

³ 이와 같은 신학적 분별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신앙고백문을 만들도록 요청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충고는 신학적인 신념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음의 신학적 반영은 우리의 연구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신념으로부터 추출해낸 결론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신학적인 중요점이나 여러 주제들이 충분히 논의 되었을 때 발생하는 모든 토픽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표현하는 여러 언어들은 여러 위원들이 사용했던 용어들의 혼합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각의 표현을 할 때에 서로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든 위원회 위원들에 의하여 “21 세의 21 세를 위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가 됨을 인정 받았습니다.

52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리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
53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한 고백입니다. “주도 하나요
54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55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5-6) 이 믿음은 다양할
56 수 있지만 나누어진 것은 아닙니다. 개혁교단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57 다른 선생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획일적이고 단일적인 교리와 고백만을
58 갖는 다른 종교단체와는 달리, 개혁교단은 여러 세대에 걸친 여러 고백문들을 한
59 믿음을 가진 구름과 같은 증인들로 포용합니다. 모든 신조와 고백문들은 모든
60 세대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종속되거나 아래에 있습니다.⁴ 성경에 나와
61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우리 믿음의 일치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62 오늘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믿음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63 앞에 놓으신 선교적인 장래로 인도할 것 입니다.

64 교회의 사명은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환영하고, 구속하며,
65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66 주의 몸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자라는 것이 이 세상 모두와 나누어야 할 좋은 소식
67 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환영하였으므로, 복음을 필요로
68 하는 고통받는 세상과 그 은혜롭고 변화시키는 환영을 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69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70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롬 1:16)

71 21 세기의 독특한 선교의 형태를 분별하기 위하여 교회가 다같이 노력할 때에,
72 종교적 다원주의, 종교적 진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영역 등에
73 관하여 많은 질문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답함에 있어서 우리가
74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진리가 교회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75 사실 입니다. 그러므로, 다원주의와 진리와 구원의 문제를 언급함에 있어서 우리가
76 강조해야 할 점은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상을 향하고
77 세상과 같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과 충분성 입니다. 이러한 신적인 은혜
78 안에서 자신있게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79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 강조점 포함) 와 “다른
80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81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이니라 하였더라”(행 4:12) 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82 개혁교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할 것은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83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알게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근거한
84 것이라는 사실 입니다.

85 2. 우리는 은혜를 통하여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께 뿌리내린 정체의 사람들입니다.
86 성령의 능력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입양
87 되었습니다 (롬 8:15, 23; 갈 4:5-6). 우리는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를 예배하고

⁴ 이 땅의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만을 채택했을 때에도,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다른 개혁 고백문들은 채택했던 다른 개혁 교단들을 인정하였습니다.

88 섬기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들의 자손들과 불변의 언약을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89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심으로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도
 90 오늘날 같이 하십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언약에 접붙임이 되고
 91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이 언약 안에서 인간
 92 가족이 무엇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는가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93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진정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94 아니라 우리는 정의하며 오히려 약한데서 강하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후 12:9,
 95 고전 1:18-2:13).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가운데 느끼는 신적 능력이 계급적
 96 혹은 가부장적이라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른 사람들과의
 97 관계가 변화되고 조정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종교적인 시각의
 98 사람들에게만, 한 사회적 경제적 계층에만, 한 민족 혹은 종족에게만, 한 성별 혹은
 99 성에 적응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
 100 안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10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102 3. 우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103 개혁 크리스찬으로서,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거룩한 예언과 사도들의 경전적
 104 글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며, 사람에게서 받은 권위가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105 지닌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또한 고백한다.” (신앙고백서, 제 2
 106 스위스 신앙고백, 5.001)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107 주고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신자들의 공동체로 이 세상에서
 108 어떻게 존재할지에 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9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귀하게 여기는 장로교인들 사이에 성경의 해석을 놓고
 110 뜨거운 논쟁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논쟁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은 성경이
 111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는 영역내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2 성경해석에 관한 양심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유는 표준에서 이탈하지 않고
 113 (규례서, G-6.0108a) 헌법의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규례서, G-6.0108b).⁵

⁵ “G-6.0108 양심의 자유 - 개인과 단체

“a. 교회의 고결성과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제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신앙고백서과 정치모범에 나와있는 개혁교단의 신앙과 정치의 본질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가능한 이러한 표준에서 심하게 이탈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와 의견을 침해하지 않고, 교회의 헌법적인 정치체제를 방해하지 않음으로, 성경의 해석에 관한 신앙의 양심은 유지되는 것이다.

“Within Certain Bounds

“그러나, 미국장로교에서 후보생 혹은 제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해진 한계 내에서 신앙 양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그녀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위를 유지하거나 추구하는 한 교회의 표준에 따라서 해석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된다. 한 사람이 개혁교회의 신앙과 정치의 본질에서 떠났는지의 결정은 시작은 이를 염려하는 개인에 의하여 시작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그녀가 소속된 치리기관 전체의 책임이 되는 것이다. (G-1.0301; G-1.0302)

114 4. 우리는 그 정체성이 물 세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15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세례 (마 28:19)는 우리를 믿음의
116 공동체로 입문시키며 없앨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을 증명해 줍니다. 이
117 신분은 우리 자신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어느 신분 보다도 지속적 입니다.
118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서로의 관계는 바로 이 신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9 5.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눔으로서 정체성이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120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 처럼, 주의
121 만찬에 같이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의 삶이 유지됩니다. 이
122 감사의 만찬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서로 앞에서
123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124 화해를 계속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규정하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125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리할 큰 만찬을 기대합니다 (눅 13:29). 이 만찬에서
126 선포되는 궁극적인 의미는 다양성을 고귀하게 하고, 연합을 인정하며, 나아가 우리
127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포용에 대한 선입견을 뒤집는데, 이는 그 날에는 “나중된
128 자로서 먼저될 자들도 있고 먼저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때문 입니다. (눅
129 13:30; 마 8:11-12 참조)

130 6. 우리는 분별과 섬김을 통하여 정체성이 강화되는 사람들 입니다.
131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으므로,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132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 시키십니다. 그것 때문에,
133 하나님은 선택을 통하여 우리의 크리스찬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134 높은 신분으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화 하는 특별한 섬김을
135 하도록 선택하신 것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136 끊임없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아시지만, 우리는
137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처럼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한
138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구체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139 의지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신실하게 기도와 연구와 예배와 자비와 정의의 사역에
140 헌신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시대의 독특한 우리의 부름을 분별함에
141 있어,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에 나와있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142 합니다.

“목회 후보생

“c. 미국장로교에서 목회를 위하여 후보생으로 받아들여지기 원하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서를 포함한 교회의 헌법적인 문서를 주의깊게 알아야 한다. (G-14.0304)”

143 B.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소망의 대상

144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45 위하여 죽으심이라 (롬 5:8).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살아
146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147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148 것이니라” (롬 5:10).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죽음과 악을 물리치신 구주라고
149 고백합니다.

150 이 고백을 굳게 붙들면서, 우리는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리고
151 십계명 같은 교회의 전통적인 교육문서들에 나와있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152 신념들에 헌신 합니다. 규례서 2 장에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인 고백문들에 증거된
153 보편교회와 개신교회와 개혁교단과 장로교의 신앙 (규례서 G-2.0300-.0500)을 받아들입니다.

155 1.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156 우리는 정경으로서의 성경을 받고, 초교파적 신조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157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 된 말씀을 수용합니다. 그는
158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으로서, 인류의 드러나고 약점 많은 상태를
159 공유하셨고, 한번에 인류 모두를 죄로부터 구속하고 의로 회복하기 위하여 자신을
160 드리셨습니다.

161 2. 우리는 장로교의 개신교회의 신앙을 고백하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162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엡 2:8-9) 을 고백합니다. 이
163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평화, 일치, 순결을 포함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애, 죽음,
164 부활을 통한 구원의 사역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선물임을
165 알게됩니다.⁶ 개혁 교단의 후예들로서, 우리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하고
166 권위적인 증거라는 사실과 (규례서, G-14.0801g(2)), 인간의 영감의 언어를 통하여
167 감동되고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들이
168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칙들이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002) -
169 구원에 관하여,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빛으로, 신학적인 진실과 영적 생명을
170 측정하는 믿음만한 안내자 입니다. 또 성경은 각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지성적인
171 상황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해석에 있어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이해를
172 갖고 접근합니다.

173 3. 우리는 개혁교단과 장로교 전통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174 지존하심, 거룩하심, 그리고 섭리의 핵심교리를 믿습니다. 이 전통에서부터, 예정론,

⁶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예비보고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화평의 원천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일치의 머릿돌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같이 갈망하는 순결과 정의의 원천임을 담대하게 선언하였습니다.

175 언약, 청지기, 그리고 인간의 우상숭배의 경향의 주제들이 흘러 나옵니다. 이러한
 176 시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체에 관하여 우리의 관념이나 사고의 틀을
 177 바꾸라는 유혹을 물리치게 물고 갑니다 (규례서 G-2.0500a(4)). 고대의 신조와
 178 고백문들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개혁하는 교회
 179 입니다. 최근의 고백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180 일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⁷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며 살기
 181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과 교회의 주로 바라볼 뿐 아니라, 만민의
 182 주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순례자로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183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184 돌리게 하는” (빌 2:10-11) 그날을 기다립니다.

185 4. 우리의 고백에 비추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86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후 13:13) 품도록 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187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부인합니다. 민족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승자와 패자를
 188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전략에서, 인종과 계층을 차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189 다른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러한
 190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임의로 설정해 놓은 범위에서는 어느 한
 191 쪽에도 계시기를 거부하십니다. 대신, 우리의 서로 다름을 통하여 화해와 회복과
 192 해방과 구속의 약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일 하십니다.

193 은혜를 통하여 오류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할
 194 수 있게됩니다. 크리스찬과 교회는 종종 틀리고 변형된 가르침을 저작하기도 하고
 195 승인하기도 해왔습니다.⁸ 이러한 것이 일으키는 겸손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196 순결을 위협하는 논쟁에서 우리를 잠시 물러서게 하여 함께 진리를 추구 하는
 197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198 안내하시도록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하고, 공부하고, 섬기기
 199 위하여 만날 때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0 C.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크리스찬의
 201 사랑과 증거의 원천

202 그리스도의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능력을 주십니까? 크리스찬의
 203 정체성과 고백적 증거는 세상에서 복음의 선포와 증거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⁷ 신앙고백서, Confessional Nature of the Church Report, pp. xi-xxx. 참조

⁸ 이것을 토의함에 있어서, 신학위원회는 진리를 왜곡한 몇 개의 예를 주의깊게 관찰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원주민 인디안들의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이 예배하고 믿는 크리스찬 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미국의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홍보지와 논문의 절반 이상이 그들의 성경해석이 무오하다고 믿고 그들 편은 완전히 옳고 다른 편은 완전히 그르다고 확신했던 개신교 목사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도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 자신의 토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내와 회개를 위한 겸손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하였습니다.

204 1. 우리는 설교와 가르침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205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처럼, 하나님은 그의
206 심판과 은혜를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상
207 명령을 수행하라는 그의 선교에 참여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위탁 하셨는데, 그것은
208 복음의 선포, 진리의 보존,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육, 하나님께 대한 예배, 사회정의의
209 구현, 그리고 하나님 왕국의 본을 세상에 보이는 것 입니다 (규례서, G-1.0200). 예수
210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신실한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11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212 2. 우리는 거룩하고 훈련된 삶에 앞장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213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과 본래의 모습을
214 유지하는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규칙적인 사랑의 훈련은 주의 몸된 교회의 각
215 지체로 하여금 죄에서 죽고 의로 겸손하게 살아나도록 격려합니다 (신앙고백서,
216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3.18;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문. 35, 7.035). 충만한 성결의
217 영을 통하여 우리는 이기심과 방종과 독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께 대한
218 순종과 희생적 섬김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성실로 성숙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19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경건과 단순과 자기훈련의 삶을 살도록 초대받습니다.
220 지속적으로 새롭게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몸과 우리의
221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드립니다.

222 3. 우리는 평화와 화해에 헌신함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전쟁으로 찢긴
223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전쟁의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전통을 인정하지만,⁹
224 이러한 모든 전통은 정당한 평화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으로 인식하므로 폭력을
225 반대합니다. 우리는 또한 빈곤과 불공평으로 괴로와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226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반면에
227 우리중에 많은 사람들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 속했는데,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
228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도움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을 돌봐야 하는 성스러운 책임을
229 불러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대하게 행동을 함으로서만 아니라 정의를
230 위하여 노력함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231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들의 용서를 빌도록 헌신해야 합니다. 성(性)과 안수에
232 관한 논쟁이 본 위원회의 특별한 초점이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돌림을
233 당하고 경멸함을 경험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우리의 죄와 남을
234 해치는 자세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찾으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복음의
235 좋은 소식에 감사하여 본위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에, 특별히 잘못을 범한
236 사람들에게, 화해의 은총을 주실 것을 기도 합니다.

⁹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는 무저항 주의(pacifism)와 공정한 전쟁 주의(just war tradition) 입니다.

237 4.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찾으므로 복음을 선포 합니다. 20 세기의 불행한
 238 절규들은 21 세의 우리 사역의 골격과 방향을 제공합니다. 바르멘의 교회처럼, “예수
 239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들어야 하고 살아서나
 240 죽어서나 신뢰하고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시다”를 (신앙고백서, 8.11)
 241 우리는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서, 억눌리고 가난한
 242 자들과 더불어 살며, 역사의 변화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이것만이 메시아적
 243 왕국으로의 길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신학 전문은 World Alliance of Reformed
 244 Churches 웹 사이트 www.warc.ch/pc/20th/01.html 에서 볼 수 있음) 라고 결정했습니다.
 245 벨하의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는 주님께서 서신 곳에 서야하며, 다시말해
 246 부정에 대항하여 해를 당한 사람들 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247 유익만을 위해 지배하고 해를 끼치는 권력과 특권층에 대항하여 증거해야 합니다”
 248 (기록 2004, Part I, p. 704).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원으로 바라보면서, 정의와
 249 의를 수호하며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초청에 아무도 예외 시키지 않는, 복음을
 250 고백하는 이러한 교회들과 같이 서 있습니다.¹⁰

251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 및 관심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 및 관심과 깊은
 252 관련이 있습니다.¹¹ 갈등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배경을 만들어
 253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생존을 위한 미래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254 달려 있는가라는 확신을 어떻게 교회는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분열과 폭력의
 255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르게 대함으로서 우리
 256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보일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벧전 3:15), 그것은
 25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변화를 위하여 부름 받았기 때문 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258 유대인, 크리스찬, 모슬람 - 아브라함의 후예들 - 들이 계속되는 세계의 갈등 속에서
 259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려 들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260 약속하신 메시아적 평화의 날을 속히 오게 하시고 미국 장로교로 하여금 그것을
 261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¹⁰ 바르멘 신학선언의 구성자들은 독일 정부와 연계하여 유대인 혈통의 정도 여부에 따라서 누가 교회에 소속되고 누가 교회를 이끌수 있는가를 독재하였던 독일 교회에 대하여 반응한 것이다. 한국 크리스찬의 신학선언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에 대항하여 무명의 기독교 진보주의자들과 민중 운동가들이 발표한 것이다. 벨하 신앙고백은 남 아프리카의 Dutch Reformed Mission Church 에 의하여 1982 년에 쓰여지고, 1986 년에 채택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의미를 위협했던 남아프리카의 차별정책을 향하여 발표 되었습니다. 이것은 216 차 총회(2004) 에서 연구하도록 추천 되었습니다. (벨하 고백문의 전문은 기록되어 있음. 2004, Part I, pp. 702-704; cf. p. 704) 이 문서들은 www.warc.ch/pc/20th 에 있습니다.

¹¹ 미국에서, 우리는 2001 년 9 월 11 일의 파괴적인 공격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라크의 또다른 전쟁, 양분화된 대통령 선거, 미국과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과 영역에 대한 논쟁, 그리고 계속되는 인종문제와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문화적 분열을 경험 했습니다.

262 자비로운신 하나님, 이 환란의 시간을 돌아보게 하셔서, 회개와 소망
263 가운데, 우리의 서로 다름을 다같이 직시하도록 하시어, 우리의 구세주
26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있는 평화, 일치, 그리고
265 순결의 새로운 크기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266 II. 신학위원회 사역의 계획과 진행 과정

267 A. 사역계획

268 교회의 평화, 일치, 그리고 순결을 위한 신학 위원회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269 채택한 계획은 21 세기에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별하는 것을 돕는 포괄적인 명령과
270 같이 것이며, 또한 논쟁과 갈등의 쟁점이 되었던 4 가지 사항 - 성서적인 권위와 해석,
271 그리스도론, 안수규정, 그리고 권한 - 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계획은 명령을
272 수행하기 위하여 첫번 위원회 모임에서 채택된 목표들을 좀더 열심히 하는
273 것이었습니다.

- 274 * 크리스찬과 보편적 신앙의 정체성과 개혁신학과 헌법적인 전통의 주요
275 주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
- 276 * 교회의 건강과 약속의 원천과 교회의 불화와 불안의 요인 분석과 평가
- 277 * 교회가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하여 나아갈 길에 대한 충고
- 278 *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은,
- 279 * 신학적 문제, 장로교 역사와 정치, 그리고 명령에 나온 사항들에 대한
280 광범위한 연구
- 281 * 지속적인 성경에 대한 묵상
- 282 * 매 모임마다 성만찬을 겸한 묵상과 예배
- 283 * 공동의 분별과 서로 조심있게 듣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 사용
- 284 * 교회의 치리기관 및 다른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의

285 위의 것 중에 두개의 방법은 특별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민감하고
286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일반적인 신학적 이해와 대화를 나누기로 한 결정
287 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시각에 있는 존경받는 학자들과 교회의 전임 위원회들이
288 발표한 글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의 입장 외의 다른 입장들을 이해하기로
289 결정한 것 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전체에 추천 하였습니다. 같이 연구하고
290 기도하며, 의도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룸에 절대적이라고
291 생각되는 비 공식적인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92 문제와 관련된 공식적으로 발표된 문서를 깊이 분석하는 것은 상호의 이해에 많은
293 기여를 하였습니다.
294 우리의 사역 계획을 빌리거나 개안하기 원하는 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295 구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모든 모임 마다의 대화 내용을 웹에 띄웠습니다
296 (www.pcusa.org/peaceunitypurity). 그러나, 여기서 이 보고서에 소개를 위하여 그룹
297 전체로서의 영적 진행과정의 두면을 강조하겠습니다.

298 B. 영적 진행과정

299 지난 5년동안 우리는 공동체로서 두개의 소중한 경험을 가졌는데, 하나는
300 아픔과 참회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301

302 1. 아픔과 참회

303 먼저, 우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차적으로 미국장로교의 갈등과 아픔을
304 인식하게 되었고, 우리 각자가 교회의 문제들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찾기
305 시작했습니다.

306 우리는 처음 모임을 가질 때부터 미국장로교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307 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308 만들수 있을가에 대하여 노력하도록 요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309 교회의 이러한 요소들이 항상 양보만 되지 충족되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10 그래서, 초기에는 위원들끼리 교회에 만연한 분위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그것은
311 상대방 특별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312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채택한 방법과 약속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만큼 상대방의
313 의견도 듣는 것이었습니다.¹²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행동으로 우리
314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렸으며, 주의 몸된 교회를 상하게 했으며, 다른
315 장로교인들에게 고통을 주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316 우리의 자세와 행동으로 서로간에 알게된 결과들의 몇가지 예를 든다면 다음과
317 같습니다.

318 * 미국장로교의 주종을 이루었던 백인교회 전통의 사람들은 과거에 자신들이
319 다른 인종을 차별했던 사실과 오늘날에도 다른 그룹의 교우들과 문화와
320 재능들을 완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담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들에게
321 얼마나 소외의 아픔과 고통을 주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¹² 본 책자 뒷장 안의 약속(Covenan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22 * 자신들이 진보적 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323 거룩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헌신할 때에 그것이 완고하고 정죄적이라고
 324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25 * 자신들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정의를 위하여
 326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비성서적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이 얼마나 소외
 327 당한 느낌일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28 * 자신들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329 치우쳤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불릴 때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330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31 * 우리중의 많은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나, 양성연애자나, 성전환자들이 교회의
 332 평화와 일치와 순결에 위협적인 존재라고 의례적으로 불릴 때에 얼마나
 333 힘들었을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¹³

334 * 우리중의 많은 사람들은 독신이 아닌 동성연애자들의 안수 금지를 지지하는
 335 사람들이 편파적이라고 불릴 때, 또 그러한 안수 금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336 너무 방종적이라고 불릴 때 얼마나 소외되었을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337 * 우리 모두는, 우리의 편견과 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오늘의
 338 당파적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339 평화와 일치와 순결의 징조의 가능성을 고통받는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데
 340 실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41 서로간의 편견과 폄하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 뿐 아니라 우리 자신 그리고 교회
 342 전체에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는 교회와 상대방에 관하여 얼마나 깊이
 343 상처를 주는지를 안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잘못을 범한 것에
 344 관하여 완전한 회개를 증거할 만큼 우리의 삶을 고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345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사고와 삶의 입장을 좀더 깊이 알게 되면서,
 346 미국장로교가 주의 몸으로서 분열된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단련되고 겸손해졌으며,
 347 구세주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과 주의 몸된 교회가 오늘의 고통을 겪게하는데
 348 모두다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진통이 다른 사람들의 것인만큼 우리들의
 349 잘못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은 우리들을 슬프게 만들었지만 또한 우리를 좀더 가깝게
 350 만들었습니다.

¹³ 본위원회는 양성연애자나 성전환자들이 제기하는 이슈에 대하여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설명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대표하는 그룹으로부터 여러 의견들을 받았습니니다.

351 2. 감사와 기쁨

352 먼저, 우리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점차적으로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과 다른
353 사람들과 다른 시각들이 갖고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가지 방법에
354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55 우리는 본위원회 진행과정의 근본이 되는 듣는 훈련과 묵상하는 훈련을 지켜
356 나가면서, 우리의 하지 않은 죄와 저지른 죄 이상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57 동료 위원들의 증거와 행동을 통하여 복음의 새로와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영을
358 느끼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으로, 우리와는 배경과 경험에서 상반되는 사람들을
359 포함한 동료 위원들의 깊이 있고 진실된 증언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마음이 동함을
360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논쟁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우리와 견해를
361 달리하는 위원들의 참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강화되었습니다.

362 물론, 위원회가 대부분의 무리들을 괴롭게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로부터 제외
363 되었다는 말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날카로운 대화와 긴장과 이해하지 못했던
364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사용했던 듣는 훈련과 분별하는
365 훈련은 이러한 고비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총회로부터 예민한
366 신학적인 문제를 다룸에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는데, 이것은
367 언론과 다른 참관자들의 집요한 눈초리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368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같이 열심히 일했던 다른 모임들처럼, 우리의 진행
369 과정도 불편한 순간들과 어려운 충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70 교회가 끊임없이 의견을 달리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어려움을 극복했거나 합의에
371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념들과 헌신에 관하여 우리는 양보하지
372 않았습니니다. 우리는 위원회에 들어올 때 가져온 우리의 시각과 입장의 대부분을
373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중 일부는 유사성이 있는 무리(교회
374 내에서 위원회의 이슈들에 관하여 구체적 입장을 취하는 무리) 들과 연관되어
375 있었으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에도 그 연계를 유지하였습니다.

376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같이하는 사역을 통하여 극도로 가까워졌고
377 변했다는 것입니다. 위원들 각자가 집중적으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78 크리스찬의 신앙과 삶의 경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다른 장로교인에 대한
379 신뢰와 다른 시각에 대한 존중이 깊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380 누리는 우리의 기쁨이 성령의 역사로 증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감사는
381 위원들의 솔직함과 겸손함과 신실함을 통하여 깊어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382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다시한번 확인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비보고서에서,
38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확인
384 하였습니다. 우리는 서로간의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선물을 질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385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는 교회의 선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386 우리가 같이 지냈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통적 확신이 생겼는데: 우리가
387 서로 다르지만, 미국장로교에 나타난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들을
388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389 C. 이 보고서의 구조

390 이 보고서는 그룹으로서 영적 발전의 두가지 면에서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391 아픔과 참회이며, 다른 하나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것은 위원회의 사역을 위하여
392 처음 모임에서 채택한 목적들의 윤곽을 따르고 있습니다.

393 서문은 (I 장) 우리의 신학적인 확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가
394 “우리의 기독교적이고 보편적인 신분의 이해를 깊게하고 개혁신학과 전통의
395 주제들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가졌던 연구와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396 II 장은 우리 사역의 계획과 그것을 마칠 때 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97 다음의 III 장은 연구와 토론의 과정을 통하여 본 위원회의 책임에 들어있는
398 논쟁이 될 만한 이슈들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진전되었는가를 요점으로
399 정리하고 있다.

400 IV 장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서 발견된 자료의 개요를 설명
401 했습니다. 어떤 자료들은 교회의 헌법의 전통에서 발견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많은
402 장로교인들에게 익숙치 않은 분별과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얻어낸 것입니다.

403 V 장은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어떻게 보존하고 진전시킬까에 관한 아주
404 실제적인 위원회의 충고들을 담고 있습니다.

405 VI 장은 위원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406 우리의 공식적인 문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각
407 위원들의 토론 자료들을 포함 했습니다. 이것들은 각 저자들의 일입니다. 다른
408 위원들은 저자들에게 충고할 기회를 가졌지만, 전체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거나
409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위원회의 생각을 자극하고 연구를 위한 자료로 포괄적인
410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제공되었습니다.

411 III. 신학위원회가 다루는 이슈들

412 “21 세기의 21 세기를 위한 크리스찬 정체성의 영적 분별을 위하여” 교회를
413 이끌도록 위원회가 임명을 받았습니다. 4가지의 이슈들을 특별히 다루게
414 되어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론, 성경의 권위와 해석, 안수 규정, 그리고 권위입니다.

415 위원회는 모든 논쟁적인 이슈들을 해결하거나 모든 갈등으로부터 해방 시키도록
416 요청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문제뿐 아니라 미래의 갈등을 신실하게
417 대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요청 받았습니다.

418 이것 때문에, 위원회는 주어진 논제들을 연구하였고, 관련된 문서들을 읽은 후
419 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과 그룹 지도력에 달란트를 받은 분들의 인도 아래에 토의의
420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216 차 총회에 (2004)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421 순결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운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422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라는 신념을 표현하는 예비보고서를 보냈습니다.
423 (서기록 2004, Part I, pp. 617-18, 638-43 참조). 교단의 위원회는 그 재능에 만족하도록
424 부름을 받았습니다. 총회는 그 보고서를 받고 교회들로 하여금 그것을 연구하도록
425 추천하였습니다. 이제는 이 최종보고서에서 우리의 임무에 있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426 제 I 장에 나와있는 신학적인 확신 위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의 내용들을 보시면,
427 우리의 임무중의 3 가지 이슈들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우리 위원들의
428 다양함을 볼 때에, 이러한 합의된 사항들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론과 성경의
429 해석과 안수규정과 인간의 성(性)에 관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입장으로 진전 하는데
430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번째 이슈인 권위의 포괄적인 주제는 복잡한 접근을 필요로
431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다음 장의 교회학, 정치, 분별, 그리고 의사결정의
432 과정에서 다루었습니다.

433 A. 그리스도론

434 “그리스도론”이라는 용어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관한 가르침을
435 다루는 광대한 신학적 범위를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주의적 시대에 예수
436 그리스도의 구원적 능력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최근 총회에서의 격렬한
437 논쟁이었다는 점에서 본다면 이것이 위원회의 임무중의 하나가 되는 것은 의심의
438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원회는 그리스도론을 역사적 전통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로
439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전 신조들과 현대 고백문들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440 구원 사역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습니다.¹⁴ 니케아
441 신조와 칼케돈 종교회의의 결정들과 속죄의 교리를 여러 차례 연구하였고,¹⁵
442 기독교론적 확신에 근거한 20 세기의 고백적인 문서 3 개를 검토 하였습니다.¹⁶

¹⁴ 우리의 처음의 연구에서 “The Confessional Nature of the Church” 라는 문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
다. 미국장로교 총회, 서기록, 1986, Part I, pp. 516-27. 이 문서는 신앙고백서 pp. xxi-xxx 에도
나와 있습니다.

¹⁵ 미국장로교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신학위원회. 비디오 Who is Jesus Christ, 총회 사무실에서
제작한 것임 (OGA--4-069)

¹⁶ footnote 10 번을 참조 하십시오.

443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교회가 그 역사를 통하여 성립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444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같이 연구하면서 그 틀이 만들어 나갔습니다.
445 예수님에 관한 우리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장되고 깊어졌습니다.

- 446 * 우리는 “예수는 주” 라는 고백과 다른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적 방법들이
447 오늘날의 신앙과 제자도를 형성하는 힘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 448 *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개혁신앙의 교리로 인정되는 다양하고 폭넓은
449 그리스도론적 확증에 의하여 교육 받았고, 오늘날의 토론에서 예수
450 그리스도에 관한 확증을 너무 단순화 시키는 경향으로 훈련 받았습니다.
- 451 * 우리는 20 세기의 현대의 사건들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452 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독일과 남아프리카와 한국과 세계의 다른 곳의
453 개혁신앙의 크리스찬들의 증거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454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하여 증거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에 의하여 동일하게
455 용기를 얻습니다.

45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에 관련된 교회의 고백적인 전통에 관한
457 우리의 연구에서 아주 폭넓고 깊은 공통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458 이 보고서를 이끌어 나가는 신학적인 반영에 있어서 공동의 신념을 서로 나누게
459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460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러한 공통된 믿음의 경각심의 발전은 우리의 일치와 기본이며
461 서로가 서로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의 기본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은 소망을
462 가져다 주며, 교회가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안고
463 참아내야 한다는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464 B. 성경의 권위와 해석

465 본 위원회는 많은 장로교인들이 교회의 논쟁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성경의
466 권위와 해석에 관하여 3 가지로 차이점을 다루었습니다. 첫째, 우리는 매번 모임 때
467 마다 성경공부를 하였는데, 사실 우리의 토론과 관련된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거의
468 매번 모임 때에 매일 하였습니다. 둘째, 우리의 장로교 선조들이 성경을 신실하게
469 읽으며 오늘까지 간직했던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관한 여러 다른 모델들을
470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의 속성과 권위에 관한 시각의 다양성에도
471 불구하고 장로교인들이 같이 나누었던 해석의 고전적인 지침들을 살펴 보았습니다.
472 그것들은:

- 473 *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 474 * 본문의 일반적인 느낌의 우선순위
- 475 *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함

476 * 사랑의 법칙
477 * 믿음의 법칙¹⁷

478 마지막으로, 신학적인 토론에서 성경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는 알고, 또 성경을
479 연구하면서 다른 해석자들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기
480 위하여, 인간의 성(性, sexuality)에 관한 성서적인 시각을 제공하는 학자들의 두개의
481 논문을 자세히 분석하게 되었습니다.¹⁸ 이 논문들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1 장과
482 인간의 성에 관하여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다른 본문들을 관찰하게 하였습니다.

483 이러한 노력은 본 위원회로 하여금 4 가지 점에서 동의하게 하였습니다.

- 484 *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충분히 말씀하게 하기 위하여, 개혁신앙적
485 접근은 성경의 권위와 해석에 관한, 장로교인들이 역사적으로 중요하게
486 인정하는 점들을 강조하는, 다양한 모델들을 계속 수용 합니다.
- 487 * 성경을 해석하는 지침들과 방법들과 자료들에는 놀랄만한 정도의 합의가
488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인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세한 해석상의 많은
489 사항에서 동의를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490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목회적으로 신실하게 적용하는 정당한 방법이
491 무엇이며,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어떤 성경의 본문들이 관련이 있는가
492 하는 것 입니다.
- 493 *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풍부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
494 알고있는 것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말씀과 좀더 깊이 그리고 정직하게
495 씨름하도록 도와 줍니다.
- 496 *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 양심의 주인이시며, 양심은 성경의 증거들에 묶여
497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분별함에 있어서, 이러한
498 범위 안에서 서로간의 깊은 양심의 신념을 존중하며 상호적인 인내를
499 연습하는 것은 중요한 일 입니다.

500 우리 각자는 본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성경의 권위를, “전체 교회 안에서 예수
501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독특하고 권위있는 증언”(규례서, G-14.0207b) 라고 인정하며,
502 그 증거를 신실하게 추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¹⁷ 이러한 지침들의 일람은 미국장로교 총회 사무실 (OGA-03-069) 에서 만든 *Seeking Peace, Unity, and Purity* 라는 비디오로 위원회에 주어졌습니다. 이 일람은 1983 년 미국의 장로교가 통합을 이룰 때에,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두개의 중요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장로교 이해와 성경의 사용 (Presbyterian Understanding and Use of Holy Scripture)” 라는 1983 년의 남장로교의 자료와 “성경의 권위와 해석 (Biblical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이라는 1982 년의 북장로교의 자료 입니다.

¹⁸ William C. Placher, “Struggling with Scripture,” in Walter Brueggemann, William C. Placher, and Brian K. Blount, *Struggling with Scriptur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2), pp. 32-50; and Richard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HarperSanFrancisco, 1996), pp. 379-406.

503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을 같이
504 생각하며 서로가 서로를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해석의 풍부한
505 전통을 가진 장로교인들이 서로의 사경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 위원회는
506 성경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서 형태를 만들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507 되었습니다.

508 C. 성(性)과 안수

509 본 위원회는 최근들어 다른 어느 것보다도 많은 논쟁을 유발 시켰던 두개의
510 사안들 - (1) 인간의 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2) 안수에 관한 신학과 관례 -에
511 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512 우리는 인간의 성에 관한 폭 넓은 의견들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513 입장과 의견을 같이 나누기도 하였지만, 우리는 기독교 학자들과 교단의 위원회와
514 모임들에 의하여 기록된 문서들에 우리의 연구의 중점적인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515 우리는 이러한 주제들에 관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다양한 문서들을 읽고 같이
516 토론하게 되었습니다.¹⁹ 이슈들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큰
517 혜택을 입었으므로 교회에도 같은 방법을 추천 합니다. 개인들의 시각을 분명하게
518 말하기 전에, 이런 문제들로 갈등을 겪는 그룹들은 우리가 했던 방법들 - 그룹의
519 모임에서 여러가지 시각을 대표하는 본문들을 사려깊게 골라서 밀접하고 조심스런
520 관찰 - 을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521 인간의 성에 관한 우리의 연구는 몇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가져왔습니다.

522 * 일반적인 인간의 성과 특수한 동성에 관한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문서들은
523 다양하고, 난해하며, 그리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 동성의 관계와
524 관계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 미국 장로교의 오늘날의 분쟁의
525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두개의 범주로 나누어질 수 없습니다. 한 회의에서,
526 위원회의 한 위원은 6 개의 입장을 가진 예표론을 주장했습니다. 각
527 입장은 죄, 화해, 그리고 구속에 관한 분명한 시각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528 다른 사람들은 그 자료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였겠고, 다른 해석을
529 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²⁰

530 * 성경의 해석과 신학적 전통과 정책의 결론들은 우리가 공부한 영역에서
531 정확하게 같은 시각으로 정렬되지 못했습니다. 자료중의 하나인, “교회
532 안에서의 동성의 관계: 여섯가지 신학적 시각들”이 보여주는 것 처럼,

¹⁹ 본 위원회가 공부했던 자료들의 인용문헌들은 웹 주소, www.pcusa.org/peaceunitypurity 에 있습니다.

²⁰ 앞으로 나올 “교회 안에서의 동성의 관계: 여섯가지 신학적 시각들” (Same-Gender Relationships in the Church: Six Theological Viewpoints) 은 웹 주소 www.pcusa.org/peaceunitypurity 에 띄워질 것입니다.

533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학자들과 저자들은 종종 그들의 연구를
 534 비슷한 신학적인 범위 안에 기초하고 있습니다.²¹
 535 * 더 나아가, 안수와 성에 관한 의견들이 특별한 신학적인 입장과는 항상
 536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신학적인 시각과 관련된 학자들이
 537 성경의 증거 - 언약자의 도덕성, 동성의 관계, 그리고 안수의 허용성 - 로
 538 볼 때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론에
 539 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은 동성의 관계가
 540 잘못된 것이라고 믿지만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동성의 한 쌍을 받아
 541 들여야 한다고 믿으며, 어떤 학자들은 성경의 완전한 증거는 동성의
 542 사람끼리의 계약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믿지만 성경은
 543 분명하게 동성의 관계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이것은 성에
 544 관한 광범위한 주제들과 동성애의 좁은면에 있어서 신학적, 성서적,
 545 그리고 정책적인 여러가지 중의 단 두가지 뿐입니다.

546 이러한 복잡한 연구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시각뿐 아니라 다른
 547 사람들의 시각에 관하여도 그 이해의 폭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548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와는 신학적이고 정책적으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549 학자들과 저자들의 노력 속에서 복음의 주제와 성서적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550 사실입니다.

551 우리는 또한 안수도 연구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시각을 나눌뿐
 552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던 이러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553 중요한 통찰력을 끌어냈습니다.

554 * 신약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크리스찬 지도력의 모델은 “종의 지도력”
 555 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비움과 섬김을 통한 사랑과 우애의
 556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롬 12:10) 자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557 닮아가게 됩니다.

558 * 개혁신앙의 전통이 강조하는 바는,
 559 - 전체 몸에서의 크리스찬의 “만인 제사장”적인 부름. 즉, 주님의 몸된
 560 교회의 건강과 성숙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561 -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지체들은 교회의 목소리를 통하여 그 영적인
 562 성장과 선교를 위하여 교회를 이끌고 양육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²¹ 하나 놀라운 사실은 문제에 관한 여러 방면의 저자들이 그들의 논리를 전개함에, 개신교 신학의 전통적인 주제가 아닌 자연법 (Natural Law, 자연의 질서에 기초하는 신학적 이해)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563 이렇게 안수받는 제직들은 일반 교우들에게 요구되지 않는 고백적,
 564 치리적, 그리고 훈련적인 기준에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565 *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는, 성경은 안수에 관하여 완전하게 개발된 신학을
 566 제공하지 못하며, 안수의 신학은 개혁신교회와 장로교단의 교리의 발전에
 567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²² 이미 아시겠지만,
 568 안수는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혼란의 근원이며 항상 갈등적인 문제
 569 이었습니다. 미국의 장로교 주의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교단적인 갈등은
 570 안수의 적합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²³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571 인간의 성과 안수에 관한 논쟁은 반복되는 유형의 최근의 예입니다.

572 본 위원회는 인간의 성 혹은 안수에 관하여 입장을 취하라고 요청받지 않았고
 573 그런 시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대화에 투자하여,
 574 서로 다른 시각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는 동료 위원들을 우리의 시각으로
 575 확신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며, 교회의 현재의 입장이 변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지도
 576 않았습니다.

577 동시에, 우리는 몇가지 점에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²⁴

578 * 동성연애자들에게 세례나 교인의 자격을 거부하는 것이나 그들과 그
 579 가족들에게 목회적인 돌봄을 보류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580 * 안수를 갈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며, 방종한 삶의
 581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결단코 안수 받을 수 없습니다.

582 * 성적인 자세는 크리스찬의 사도력과 지도력과 공동체의 삶에 아주 중요한
 583 사실로서,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584 * 성적인 경향 그 자체는 안수의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585 위의 합의사항들은 본 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이끌어갈 신학적인 신념에 그
 586 뿌리를 두고있는, 폭넓은 신학적인 시각과 입장들을 남겨주게 되었습니다. 본
 587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러한 폭 넓은 시각들을 개인적으로 고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588 어떤 위원들은 교회의 현재의 입장을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어떤 위원들은 그
 589 입장을 문제를 제기하거나 변화를 원했으며, 다른 위원들은 성과 안수에 관하여
 590 그들의 생각을 아직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²² 미국장로교의 제직 안수의 신학과 실체를 위한 위원회 (Task Force on Theology and Practice of Ordination to Office in the PCUSA) 의 제안 (Theology and Worship Ministry Unit Proposal) 참조. 서기록, 1992, Part I, pp. 1021-1092.

²³ 장로교인들은 이러한 이슈들을 안수의 요건으로서, 안수를 추구하는 자들의 영적 적합성으로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한 교단에서 다른 교단으로, 혹은 미국장로교와 여성 안수로서, 교리주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²⁴ 이렇게 합의할 수 있는 조항들은 현재의 미국장로교의 가르침의 분석 결과 보다는, 우리의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연구와 대화 기간 동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합의점들이 모두다 총회가 승인한 과거의 선언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591 위원중의 하나인 Stacy Johnson 이 교회 안에서의 동성관계에 관한 신학적 시각의
592 범위에 관해 발표한 것을 들으면서, 많은 위원들은 안수에 관한 질문부터 시작하기
593 보다는 좀 더 기초적인 신학적 질문을 탐구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는 것을 믿게
594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화해와 구속의 은혜스런 드라마가 고립적이고
595 계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세례를 받은 동성연애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596 역사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²⁵

597 우리는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과 복음의 고결함을 걱정하는 다른 위원들의
598 성과 안수에 관한 시각을 통하여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599 차이점은 격렬하며 심각했지만, 그것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같이 지내면서, 사랑
600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서로를 통하여 배우며, 몸(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601 용기가 생겼습니다.

602 더 나아가, 우리는 성과 안수와 동성의 계약적 관계에 관한 시각은 강하고
603 복잡하며, 이러한 시각을 갖고있는 우리의 동료 위원들은 진실되고, 신실하며,
604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 여러
605 세대 동안 교회에게 주어진 성과 안수와 동성의 계약적 관계에 대한 질문의
606 “예/아니오” 형태에 대신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건설적인 답을 교회가 추구해야
607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다음 부분에서 미국장로교의 역사와
608 정책적 전통에 담긴, 또 평화적이며 바른 공동의 삶을 추구했던 다른 공동체들의
609 결정과정에 담긴 전례들에 나타나는 건설적인 모델들을 하나씩 열거할 것 입니다.

610 **IV. 평화, 일치, 그리고 순결을 위한 자료들**

611 성과 안수와 그리스도론에 관한 논쟁과 다른 논쟁적인 주제들은 특별히
612 격렬했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제기하는 딜레마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613 교회의 분열을 위협했던 논쟁들은 비슷한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614 가능한 많은 입장들이 존재하는데, 결정을 내려야하는 압력, 특별히 교회 제직의
615 자격에 관한 것은 우리의 선택을 치리기관을 양분화 시키는 이분법적인 형태로 몰고
616 갑니다. 종종 상당히 큰 숫자인 양측은 교회 전체의 정책의 지배력을 얻기 위하여
617 오래고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결과는 교회가 갈등으로 심히 피곤한 상태에
618 있습니다

²⁵ Johnson 의 발표는 오늘날의 성서적인 학문과 신학적인 표현에 담겨있는 질문에 대한 반응의 넓고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다. Johnson 은 이러한 질문들은 교회가 결혼을 했으나 독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나, 동성의 관계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말합니다.

619 분열과 대립을 만들어내는, 때로는 괴롭기도 하지만, 계속되는 반목에 대신하는
620 답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교회가 지속적인 논쟁을 하는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진
621 오늘과 같은 상황에서, 건설적인 모델을 만들었던 장로교의 전통과 자료들을 연구
622 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이슈들에 관하여 다른 입장을 갖는 크리스찬의 사심을
623 유지하게 위하여, 자비와 상호 이해의 정신으로 대다수의 뜻과 소수의 양심을
624 존중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소중한 자료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625 자료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갈등은 서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626 따를 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창조적이며 건설적인 관계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
627 장에서는, 교회의 신학과 역사와 정책과 또 크리스찬 공동체를 강화 시켰던 공동의
628 삶 속에 섞여져 있는 어떠한 관례들 속에 있는 자료들의 연구 결과를 같이 나눌 것
629 입니다.

630 A.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

631 교회 치리에 관한 개혁 신학

632 교회의 치리에 관한 장로교의 기본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633 사실입니다 (규례서, G-1.0100). 교회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성령에
634 조명되어 성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킴으로 분명한 형태를
635 이루게 됩니다. 장로교의 정치에 의하여 성립된 연결적인 제도 (connectional system)
636 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에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637 그리스도의 영에 귀를 기울이는 구조와 과정을 만들려는 인간의 최고의 노력입니다.
638 “장로들은 단순히 교인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모여
639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 대표하려고 한다.”²⁶

640 잠재적인 교회의 갈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귀를 기울이는 신실한 노력이
641 경쟁적인 이슈들에 관하여 교회의 여러부분들을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끌 때에
642 생깁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이에서 있음을 보면서, 본 위원회의 경험도 교회의
643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644 본 위원회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이견들은 교회내의 여러 무리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645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고자 할 때에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646 이러한 차이점은 중요한 주제들 사이를 돌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차이점들은, 서로
647 다른 각각의 결론들이 좋은 자격과 좋은 성품과 믿음을 가진 많은 신실한 신자들을
648 끌어오기 때문에, 해결하기 힘듭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그러한 상황들은 진귀한
649 현상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결국에는 교회를 진리로 인도한다는
650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인내와 상호 관용과 그리고 신실한

²⁶ 규례서, G-4.0301d

651 해답을 얻기 위한 공동의 분별적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652 본 위원회의 모든 운영은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653 공동체로 규정되기 위하여 인내와 상호 관용과 공동의 분별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654 개혁교단의 전통으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서로 간에 가깝게
655 만들었던 훈련들 중에는,

- 656 * 진실된 자기 성찰, 상호간의 고백, 그리고 교회의 소명과 신실함을
657 위협하는 우리의 잘못된 길로부터의 회개.
- 658 * 예배에 같이 참여하며, 일치를 위한 예식인 성찬식의 참여.
- 659 * 경계선을 초월하여 공동으로 상호 간의 이해를 강건하게 만드는 공동적인
660 성경공부.
- 661 * 비평을 하기전에 서로 상대방의 시각을 먼저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정직한
662 대화.
- 663 * 우리를 장로교인으로 묶어주는 교회 역사와 신학과 고백들과 정치의
664 기본적인 시각에 대한 신중한 연구.

665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는 전통 속에 담겨있는 신학적이며 고백적인 연결을 다른
666 1 장을 고찰하면서, 이 갈등의 시간 속에 건설적인 연결을 가능케하는 우리의 역사와
667 정치의 요소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668 B. 건설적인 업무(약속)를 위한 자료: 장로교 정치

669 장로교 정치는 다음과 같은 교회에 관한 깊은 신학적인 신념의 표현입니다.

- 670 * 일치: 그리스도는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훈련되고 정돈된
671 공동체의 삶에 성실하게 참여함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672 하나됨을 증거합니다.
- 673 * 순결: 교회가 주의 몸이요 또한 교인들의 삶이라는 면에서, 진리, 거룩함,
674 그리고 의로움은 제자도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675 궁극적으로, 교회는 신앙과 삶의 중요한 것들에 관하여 반대를 하기 위한
676 찬성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정치는 중요한 논쟁들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677 제공해야 합니다. 단지 기술적이고 법적인 해결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678 왜냐하면, 논쟁을 일으키는 신념의 갈등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679 오직, 신학적으로 진실된 것에 근거한 해결책만이 오래 지속 됩니다.
- 680 * 평화: 진리의 추구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서로 대화를 할 뿐 아니라 교회를
681 위한 하나님의 뜻을 공동으로 추구하는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할 줄 아는
682 공동체에서만 발생합니다.

683 역사적으로, 장로교 정치는 정지상태도 아니며 독자적이지도 않습니다. 오늘의
684 미국장로교를 형성하는 교단적인 전통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독특하게

685 “장로교적”이라고 여겨지는 정치의 차원에서 각기 다른 점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686 그들은 신학적으로 독특한 장로교회의 삶의 어떠한 정치적인 원리와 다른 크리스찬
 687 공동체의 훈련 사이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688 네 쌍의 원리들, 혹은 “균형의 사항들”은 미국장로교의 정치 모습을 형성하는데
 689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균형의 사항들에 관한 전문은 역사적인 예와 더불어
 690 “규례의 원리: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그들의 공헌”(Principles of Polity:
 691 Their Contribution to the Peace, Unity, and Purity of the Presbyterian Church) 이라는
 692 논문 속에 있는데, 이것은 위원회의 웹사이트의 자료(Resources) 부분에 있습니다.
 693 한가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건설적인 긴장의 관계 속에서는, 이러한 균형의
 694 사항들은 격렬한 토론과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장로교인들로 하여금 비교적
 695 조화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학적 헌신들 사이에 균형이 깨질때에,
 696 논쟁들은 쉽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에 구멍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해
 697 왔습니다.

698 장로교인들이 보통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에 관한
 공동체적 분별력을 존중하며

한편으로

성경의 권위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
 주는 믿음과 관례의 본질적인 요소
 들을 굳게 유지하며

한편으로

믿음, 예배, 경건, 증인과
 봉사의 비본질적인 면에서
 자유를 인정함.

세상을 향한 독특한 장로교와 개혁
 교단의 증거사역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성도의 신분을 같이 나누는
 다른 크리스찬들과 공동
 선교에 참여함.

교회정치에 있어 원칙적인 관할권을
 갖고있는 치리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감독과 비평의 권한을 갖고
 있는 치리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함.

699 1.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에 관한 공동체적 분별력을 존중하며 한편으로
 700 성경의 권위에 따라 오직 하나님만이 양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함.
 701 미국 장로교 주의의 초창기에, 이러한 두가지 원리를 연결시켜줄 방법의
 702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굳게 붙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종교
 703 회의들이 잘못을 범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²⁷ 그러므로, 그 역사 속에서
 704 교회는 “모든 종교문제에 있어서 개인의 판단 권리가 보편적이고 분리 시킬 수 없는
 705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²⁸ 동시에, 개혁신교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706 방법이 고독한 것이 아님을 주장해 왔습니다. 첫번 장로교단의 법정과 협의회는
 707 하나되는 몸(교회)의 신실한 증거는 상호간의 책임과 성령의 활동을 공동체 전체로
 708 분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이것들은 피나는 훈련입니다. 그들은,
 709 한 두가지 형식으로 나타나는 - 어떤 결정에 대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 하거나 만약
 710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평화롭게 물러나는 것 - 전체 교회의 뜻을 위하여 사랑과 존경
 711 안에서 인내를 요구 합니다.²⁹

712 2.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어주는 믿음과 행동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713 유지하며 한편으로 믿음, 예배, 경건, 증인과 봉사의 비 본질적인 면에서 자유를
 714 인정함.

715 양심과 인내라는 한편과 교회 전체의 뜻의 존중이라는 다른 한편 사이의 긴장은
 716 자연스럽게 여러 질문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훈련에 있어서 어떠한
 717 것들이 “본질적이고 필요한 것인가”와 그래서 엄한 순종을 요구하며 어떠한 면에서
 718 관용이 허용되는가에 대한 것 입니다. 빠르게는 1729년부터, 미국 장로교는
 719 성직자의 안수와 관련되어 이러한 질문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단내의
 720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회는 믿음의 기초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채택하여 모든
 721 목사들이 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의 장로교회로 하여금 믿음과
 722 삶을 위한 한가지 기준들로 고백적인 교회임을 확증하게 하였습니다.

²⁷ “사도시대 이래 모든 대회와 평의회는 전체회의든지 특별회의든지를 막론하고 과오를 범할 수 있으며 그 전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신앙이나 행위의 법칙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신앙과 행위를 돕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175), 신앙고백서중에서.

²⁸ 규례서,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G-1.0301 (1)(b).

²⁹ 규례서, 교회 규례의 역사적 원리 (G-1.0302) 이 원리는 교회의 역사에서 일찍부터 확립되어 왔습니다: “어떤 결정이 다수의 투표에 의하여 결정될 때 개 교인은 능동적으로 동의 하거나 아니면 피동적으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아니며 그의 양심이 두개의 결정 중 어느 것도 따를 수 없게 한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이해와 항의를 한 후에,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화스럽게 교회로부터 물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기관)가 필요불가결한 교리나 장로교 정치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에만의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Plan of Union or The Reunion of 1758, Synod of New York and Philadelphia, p. 3; see also *Record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inutes of the Synod of New York and Philadelphia 1758, p. 286; also *The Presbyterian Digest*, 1907, William E. Moore, compiler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and Sabbath School Work), p. 28.)

723 그러나, 대회의 어떤 목사들은 그 기준들의 어떤 조항들은 성경에 나와있는
 724 것들과는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절대적인 강요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725 때문에, 성경 아래에서의 양심의 자유에 대한 질문들이 곧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726 대회는 이러한 목사들과 목사 후보생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조항 중에서
 727 특정한 조항에 관하여 그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 (양심의 가책) 을 선언하게끔
 728 허용함으로써 이러한 양심의 논쟁의 문제를 해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격을
 729 심사하는 치리회로 하여금 교회의 “교리와 예배와 정치”의 중요한 조항들에 대한
 730 목사(후보생)들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책임을 위임 하였습니다.³⁰ 비록 Adopting Act
 731 가 나중에 수정 되었지만, 그것은 오늘날 까지 미국의 장로교회가 고백적 헌신을
 732 이해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신학적인
 733 순결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어떠한 믿음과 형식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734 것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정된 한 체제의 범위 안에서 설명하고
 735 이론화하는 과정에 관하여...차이들이 항상 존재하고 허용하게 되었습니다.”³¹

736 *3. 세상을 향한 독특한 장로교와 개혁교단의 증거사역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737 *성도의 신분을 같이 나누는 다른 크리스찬들과 공동선교에 참여함.*

738 미국의 장로교회는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739 놀랍도록 연합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증거사역을 달성하는
 740 최상의 방법에 있어서 취사선택의 의견들이 갈라져 왔습니다. 그중의 한 줄기는
 741 세상에서의 변화의 증거를 위하여 필요한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742 독특한 개혁교단과 장로교회의 전통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로,
 743 동등하게 두드러진 다른 줄기는 훼손된 상태의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744 신실하고 효과적인 증거는 다른 크리스찬 공동체와 협조하며 연합하는 것이
 745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746 이러한 두가지 견해를 가진 대표들이 처음에는 연합 하였다가 후에 분열했던
 747 극적인 예가 바로 1800 년대에 회중교회 (Congregationalists) 와 장로교 (Presbyterian
 748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Plan of Union 조약 입니다. 처음에는 총회가
 749 이 조약을 지지하였으나, 이 조약 아래서 형성된 교회와 노회의 혼혈성은 전통적인
 750 칼빈주의 장로교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1837 년에, “Old School” 로 나중에
 751 불리우게 되는 이 무리들은 Plan of Union 조약 아래에서 세워진 대회와 노회와
 752 교회들은 (장로)교회의 정식 소속이 아니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절단된” 대표

³⁰ 서기록,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1706-1788, Guy S. Klett, ed. (Philadelphia: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1976), 103-104

³¹ Minutes, PCUSA, 1868, “Proposed Terms of Reunion Between the Two Branche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 33. For Plan of Reunion of 1869, see Digest, 1886, pp. 99-106; also Minutes, PCUSA, 1865-1869, P. 276FF.

753 들은 교단으로부터 탈퇴하여 같은 법적 이름 아래에서 뭉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754 그 유명한 “New School” 이 됩니다.

755 1870 년에, 북쪽의 “Old School”과 “New School” 교회들은 “상호간의 신뢰와
756 사랑”의 정신 안에서 다시 뭉치게 됩니다. 양측의 재결합은 양쪽 “School” 들의 주된
757 사상들을 “다양성과 조화, 자유와 사랑”의 정신 아래에서 연합시켜 “정통성과 ...
758 크리스찬의 자유를 보장함”을 추구함으로써 조심스런 재결합을 이루게 됩니다.³²

759 4. 교회정치에 있어 원천적인 관할권을 갖고있는 치리회의 권리와 책임을
760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감독과 비평의 권한을 갖고있는 치리기관의 권리와 책임을
761 유지함.

762 교회의 초창기부터 논쟁이 되었던 또 다른 문제는 치리기관의 권위에 관한
763 것이다. 첫번 미국 노회 (1706 년) 는 신실한 교회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764 관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안수받는 성직자들로 구성 되었습니다. 조나단 딕킨슨
765 (Jonathan Dickinson) 의 지도력 아래 뉴 잉글랜드에서 온 대표들은 모든 치리기관의
766 권위를 제한하는 것을 선호 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교회사역에 필요한
767 모든 것을 제공한다고 믿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출신의 다른 대표들도
768 성경이 “무오한 규칙” 이며 교회의 회의는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
769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단순한 글자들”은, 신조들을 만들고
770 고백문들을 채택하며, 교회 전체의 삶을 주도하여 신뢰를 받을만한 폭넓은 대표들에
771 의하여 해석 되어져야 한다는 것 입니다.³³ 미국에 장로교회 총회가 구성 되었을
772 때인 1797 년에 이러한 생각이 우세 하였습니다.

773 이렇게 총회의 권위를 높이 인정하는 시각은 1958 년 United Presbyterian Church
774 in North America 가 PCUSA 와 연합할 때에 더욱 강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775 장로교회의 전통에서의 “상급” 치리기관이 갖는 권위는 교회정치의 중요한
776 결정들이 고안되는 치리기관들 (당회와 노회들) 의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균형을
777 이루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각은, 노회는 총회가 형성되고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778 이미 존재했으므로, 교단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회 위의
779 치리기관들의 권위를 제한하는 전통을 가진 미국의 남장로교 (Presbyterian Church in
780 the United States, PCUS) 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PCUS 는

³² 회의록, PCUSA, 1869, pp. 26-41, esp. 36-37; For Plan of Union 1869. see *Digest*, 1886, pp. 99-106; also 회의록, PCUSA, 1865-1869, 회의록과 보고서, p. 276ff

³³ “성경의 문자들이 교회의 규칙들인가 아니면 성신의 의도에 따라 참되고 적합한 의식을 갖는 모든 내용들이 규칙들인가?” (John Thomson) *An Overture Presented to the Reverend Synod of Dissenting Minister, Sitting in Philadelphia, in the Month of September 1728* (Philadelphia: printed for the author, 1729), 15-16, 18-19

781 총회를 특정한 케이스를 결정하는 최종기관으로 인식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장로교
782 총회는 일반적인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 신중할 뿐 아니라, 그 결정들이 “교훈적이며,
783 조언적이며, 충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³⁴ 1983 년의 남장로교 (PCUS) 와
784 북장로교 (UPCUSA) 와의 재연합은 총회에 대항하는 노회의 권리를 옹호하는
785 양측의 요소들은 강화 시켰습니다.

786 노회와 당회는 소속 제직들을 심사하고 안수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며,
787 교회와 노회에 누가 멤버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788 하급 치리기관은 행동을 하기 위하여 헌의안을 통하여 상급 치리기관에 청원을 할
789 수 있습니다. 노회는 교회의 헌법의 수정을 확인 (거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권한을
790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총회와 대회와 노회가 “상급” 치리기관의 역할을 할 때에는
791 특정한 케이스에 관한 “하급” 치리기관의 결정들을 감독할 의무와 검토할 권한을
792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은 비슷한 사안들을 결정하는 하급 치리기관들에게
793 전례를 보여주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794 장로교 정치를 연구하면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795 * 네개의 상호보완적인 정신 안에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훈련을
796 한다는 것은 항상 힘들고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장로교회는 하나님
797 나라로 향하는 바른 길잡이가 되는 나침반으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
798 하시는 성령을 바라 봅니다. 교회 안에 깃들어 있는 문화적인 기회와 유혹,
799 논란이 되는 사안들로 인한 불화, 교회 안과 밖의 다른 요소들은 교회로
800 하여금 그 균형에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801 그것들이 교회를 이끄는 원리들 사이의 필요한 긴장을 깨뜨림으로서 믿음
802 이라는 배를 전복시키는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도전을 맞으며
803 교회를 부르신 것은 부동의 완전한 균형 보다는 유연성 있는 평형의
804 상태를 추구하기 위함 입니다. 이러한 목적들은 오늘의 우리 문화, 반목,
805 신학, 그리고 관습에 의하여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원리들에게 잠시동안
806 정책적 무게를 실어주는 호의를 통하여 성취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807 임시적인 운행은 배의 균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808 항구적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이 되고말면, 신실하게 전진하는 방향에

³⁴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총회 서기록 1879 (Wilmington, N.C.: Jackson and Bell. 1879), pp. 23-24.] PCUS 총회의 권위가 제약을 받았던 좋은 예는 1965년에 발표된 전년도 총회때의 결정과 회의록의 개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1898년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기준의 조직적인 교리를 “근본원리”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 나타낸 반응이 나옵니다. PCUS 총회는 구속력을 갖는 “근본원리” 채택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의 개요에 의하면, 총회는 “조직적인 교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법적 절차 없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수 후보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노회의 기능적인 면에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 노회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고 하였습니다. (A Digest of the Acts and Proceeding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1861-1965 [Atlanta, Georgia: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1966, p. 117. 회의록 참조, PCUS, 1893, p. 223.)

809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게 되면, 위에 기술된
 810 상호보완적인 관계의 평형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811 * 개혁교회의 전통이 잘 알고있는 바대로, 교회는 인류의 문화 속에 처해
 812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 합니다.

813 - 다른 문화의 배경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포함은 장로교 정치와 장로교
 814 공동의 삶에 활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롭고 신실한 장래를 열어
 815 놓았고 앞으로도 열을 것입니다. (영국의)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816 활발한 장로교 공동체의 독특한 미국식 형태가, 영국제도의 다양한
 817 문화적 배경에서부터 파생된 교회 정치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던 초기
 818 멤버들의 신념들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날은
 819 유색인 공동체들의 전통들을 포함하는 것은 다가오는 세대의 교회의
 820 장래를 넓히고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821 - 교회는 죄 많은 인간들로 구성 되어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아주
 822 약합니다. 죄는 교회가 성경의 부름이라고 느끼며 유지해 오던 정치의
 823 원리들 사이의 균형을 붕괴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현대의
 824 정치는 바라는 이상에 비슷한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항상 개혁의
 825 대상이 됩니다. 최선의 상태에서, 정치 원리들의 신실한 평형을
 826 이루려는 노력은 믿음이라는 배를 바로 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827 통치를 위한 진보를 계속하게 합니다.

828 * 그렇다면, 성경의 도움과 함께 교회 정치는 공동체 내에서의 크리스찬의
 829 삶을 이해하는 교인들의 가시적인 구체화로 갈망할 수 있습니다.

830 * 비록 교회의 구조와 훈련과 정책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교인들이
 831 인정한다 하더라도, 장로교회의 정치에 대한 순복은 안수받는 지도자들의
 832 자격입니다.

833 * 교회의 정치는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갈등들이 신학적으로 개진될 수
 834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835 순수하게 신학적인 차이에 근거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기술적이며 극히
 836 정치적인 해결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신학과 정치
 837 사이의 순수한 관계가 최근들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838 C. 건설적인 업무(약속)를 위한 자료: 공동체적인 분별

839 장로교 정치와 전통적인 관례의 의사결정 방법은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840 그러나, 역사와 경험을 보게되면 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상황들이 다루어지는 가장
 841 효과적인 방법은 장로교회의 법이 의존하고 있는 의회식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842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기는 대다수가 모든 것을 가지는 가부의 투표
 843 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은 상당수의 소수가 있거나 공동체 삶의 중요한 시각에
 844 지속적이고 지대한 분열이 있는 경우 그 상황에 아주 부적당할 것 입니다.

845 그러한 상황에서는, 의회적 방법이 해결보다는 정치적인 다툼으로 악화시키거나
846 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습니다. 적대적인 토론은 서로를 반대하는 입장으로 만들고,
847 그 입장의 저변에 깔려있는 필요와 가치와 관심과 염려를 가리고 맙니다. 토론에
848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며 다양한 시각과
849 사랑 안에서의 서로의 순종과 협력적인 노력을 통한 성령의 인도를 반대하게 됩니다.

850 교회의 삶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 특별히 복잡하고 분열의 가능성이
851 있는 결정들을 하기 위하여는,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자료들을 모으며 기도를 통한
852 묵상과 솔직한 질문들과 경청하는 자세와 옵션들의 중요성을 다같이 의논하기 위한
853 시간이 필요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기위한 분별력과 교회의 연합을
854 위하여는, 결정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855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856 본 위원회는 이러한 분별을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의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857 “위원회 전체로서” 신중하게 생각하였으며 상대방의 초청, 대립상태의 관리, 공감대
858 형성, 그리고 구조적인 공동의 분별을 위한 기술과 같은 훈련을 도입하기도
859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편들과 교회의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웹 주소
860 (www.pcusa.org/peaceunitypurity) 에 있는 토론 자료중의 하나인 “분별과 의사결정”
861 이라는 자료에 좀더 깊이 상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총회를 포함한 모든
862 위치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한, 성경연구와 단체적 이해를
863 위하여 심각하게 노력하면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864 인도하는 공동의 양육의 자세를 통한, 공동의 노력을 정기적으로 시도함으로써 좀더
865 잘 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866 D. 정치와 진행과정에 관한 결론

867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장로교의 역사와 오늘날 교회가 안고있는 어려움의 해결에
868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개혁전통 외의 자료들 까지도 돌아 보았습니다. 이 자료들이
869 문제의 해결을 제공하고 장래의 방향을 약속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870 공동체로서 어떻게 단순한 우리 역사의 기록이나 그 훈련의 법적 규정들 이상의
871 것을 전해줄 것인가를 배워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본적인 신학적 헌신과
872 소위 “균형의 정점” 이라고 불리는 역사적 기록과 훈련이 생기게 하였던 실제적인
873 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정점에 있을 때, 장로교회는
874 확고한 위치를 가졌고 그들의 역사와 실제의 범위와 그 이상에 있어서 대안들을
875 맞을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균형있는” 자세를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876 아니지만, 장로교회가 개혁교단의 정신이 갈망하는 신실한 평형의 상태를 유지하기
877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 입니다.

878 우리 위원회가 강한 인상을 받았던 오늘의 교회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세번째
879 자료는 교회의 교인들과 여러 단체들로서, 그들은 모임들 사이에서 그룹들 사이의
880 다리 역할을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깊이하며, 사랑으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881 새로운 방법들의 개척자들과 같았습니다. 본 위원회가 채택한 목적들 중의 하나는
882 교회의 건강과 약속들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교단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의 한
883 복판에서, 축하해야 할 건강하고 강인한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884 장로교인들 사이의 강한 이해와 연결을 추구하는 어떠한 과제들은 2004 년
885 총회에서 신학적 반영을 위한 모임들이 있을 것을 요청 하였기에 이에 응답하여
886 시작되었지만, 그들중에 많은 모임들은 이미 진행 중이었고, 사실 본 위원회 보다도
887 전에 이미 존재 하였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이슈들에 관하여
888 훈련과 깊은 생각을 통하여 교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노회들은 대화하는
889 모임들을 만들과 선교를 통하여 교회들을 가깝게 모았습니다. 목회자들은 통찰력과
890 지원을 제공하는 동료들로서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회의 소속
891 기관들과 사무처들은 다양한 장로교인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묵상하며 대화하고
892 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노력들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나름대로 독특한
893 신학적 입장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동교회 같은 단체들도 이 노력에 기여
894 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부분들은 논쟁적인 질문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하는 단체
895 내의 사람들을 초청하여 교육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최근의 한 경우에는, 두개의
896 서로 아주 다른 단체들이 기도와 회개를 위한 모임을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897 차이를 좁히려는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과 더불어, 교회의 삶의 구조와 실제에서
898 중대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급변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옛 모델은 사라지면서
899 미국 내의 새로운 교단주의의 형태가 개체교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전국적으로
900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회중과 지역 교단적 구조와 선교와 그리고
901 교회생활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 예배와 프로그램을 새롭게 강조하는
902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의 어떤 것들은 염려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다른
903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무언가를 하신다는 경각된 의식을 가져다
904 주기도 합니다.

905 본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러한 폭넓고 다양한 노력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단체들
906 사이의 대화 내용을 읽었으며, 이러한 교회의 일치와 평화와 순결을 위하여 이미
907 노력하고 있는 노회와 교회와 다른 단체들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³⁵ 이러한
908 경험들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들은 이 보고서와 여러 추천들을 통하여 본
909 위원회가 육성코자 하는 과제가 교회에게 있어서 새로운 경험이 아니라, 교회가
910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세와 현실의 계속입니다. 이 보고서는 교회에게 있어서

³⁵ Leslie Scanlon, "Cammon Ground: Task Force, small groups seeking way forward for PC(USA)," *The Presbyterian Outlook*, May 30, 2005, Vol. 187, No. 20, pp. 3-5.

911 새로운 아니면 또다른 표현이 아니라 많은 장로교인들이 표현하고 살아왔던 갈망과
912 기대를 종합해 놓은 것 뿐입니다.

913 평화와 일치와 순결은 교회를 위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것들은 장로교 역사를
914 돌아보며 배운대로, 어느 교회에나 어렵게 얻는 덕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의
915 고백과 질서와 훈련의 근본적인 요소들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아니면 가끔 심하게
916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 - 특별히
917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심판과 화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 는 우리의
918 제자도와 믿음의 시험과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확증하는 많은
919 것에서 도전이 됩니다.

920 V. 권고

921 우리의 사랑하는 구세주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화, 일치,
922 그리고 순결을 추구하면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를 추천 합니다.

923 1.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위원회는 제 217 차 총회 (2006) 에
924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하게 권유 합니다.

925 a. 미국장로교의 교인 각자는 교회의 가시적인 하나됨을 증거하며,
926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됨을 방해하는 교단 분열을 피하며, 교단내의 다른
927 교인들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가므로, 이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한
928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929 b. 모든 당회들과 교회들과 노회들과 대회들은 피차 간에 그리고
930 총회와의 관계에서 계약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931 이유

932 본 위원회는 미국장로교가 하나의 주의 몸으로 단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933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내의 불화가 깊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934 않습니다. 심지어 작은 본 위원회도, 거의 4년에 걸친 분별을 위한 노력에도
935 불구하고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936 동시에, 우리의 친교와 다양함을 위하여 선택받은 교회에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937 것 보다는 동의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관한
938 핵심적인 확신들이 장로교인들을 서로 가깝게 만듭니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939 핵심적인 확신들을 한 목소리로 발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940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특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우리
941 미국장로교가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갈라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42 본 위원회의 위원 각자들은 아직도 다른 위원들이 고수하는 입장들이 잘못되었고,
943

944 교회에 해를 가져오고 의미를 모호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945 우리와 신학적으로 시각이 다른 입장들의 순수함을 존중하고,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946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대편에 섰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같은 성경적이고
947 크리스찬적인 확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948 그러므로, 본 위원회는, 불화 가운데서도 미국장로교는 교단의 분열을 막기 위한
949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쓰라린 분열을 막기 위한
950 방지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성원이 다양한 위원회는 소중한 다양성을 남겨
951 놓으면서 일치 를 위하여 필요한 실제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952 생활의 유형, 지속적인 연구와 정기적인 예배의 결과를 통하여 얻는 경험, 우리
953 역사와 정치 원리에 대한 검토는 어떠한 장로교의 전통과 습관들이 있음을 확신하게
954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로교의 전통과 습관들은 때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955 못하였고, 그러나 미국장로교로 하여금 분열을 방지할 뿐 아니라 복음의 내용대로
956 장로교인들이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 한다는
957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드리는 다음의 권고는 교회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한
958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959 **2.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위원회는 제 217 차 총회 (2006) 에게**
960 **치리기관들과 교회들과 장로교의 다른 기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와**
961 **공동체 형성과 연구와 연합적인 사역을 통한 집중적인 분별을 위하여 애썼던**
962 **본 위원회와 다른 모임들의 예를 따르도록 강력하게 권고 합니다.**

963 이유

964 본 위원회는 교회가 연합되고 나누어지는 사안에 대한 분별과 토론을 위한
965 “도구와 방법”을 고안하도록 명령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에
966 따라서, 본 위원회는 크리스찬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967 독특하지 않다는 사실과,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성경연구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968 앞길을 열어주는 기도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969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게 본 위원회와 다른 모임들이 분별의 길을 위하여
970 시도했던 다음의 방법들을 추천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깊은 묵상, 심각한 신학적
971 교리의 연구, 교회의 역사에 관한 집중적인 검토, 갈등을 유발하고 해결하는 확신의
972 흐름, 오랫동안 경험을 통하여 얻는 실제적인 지혜, 정기적인 기도와 예배, 다분히
973 분열적인 문제의 소개를 위하여 다른 시각에서 쓰여진 성경의 사용, 그리고 중요한
974 목적을 향한 공동의 노력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훈련은 본 위원회가 교회에
975 추천하는 “도구와 방법”의 일부를 이루게 됩니다.

976 본 위원회가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는 모임들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977 만들어준 토론 자료들을 웹 (www.pcusa.org/peaceunitypurity) 에 준비 했습니다.

978 본 위원회에서 만든 교육적인 자료 외에도 저희들이 읽은 자료들의 전문이 있습니다
979 (www.pcusa.org/peaceunitypurity, Resource 부분을 보십시오). 2006년 6월 전에,
980 교회의 지도자들과 멤버들과 그룹들이 교육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981 만들었거나 우리가 사용하였던, 교육 과정적인 자료들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982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권고하는 의도는 전체 교회에게 어떠한 형태나 접근
983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의 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위원회의
984 자료들이 이것을 시작하는 시점에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모임들이 사용했던
985 자료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권하며, 상호간의 이해를 추구하기로 결정한
986 사람들이 그들의 과정에서 집중하였던 모든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져오기를
987 바랍니다.

988 **3.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위원회는 제 217 차 총회 (2006) 가 이**
989 **보고서를 이끌어 가는 “신학적 반영”을 공부할 것을 권고 합니다. (line 35-**
990 **265)**

991 **이유**

992 본 위원회는 “21 세기의 21 세기를 위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영적 분별”에
993 관하여 미국장로교를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분별의 과정을
994 크리스찬의 믿음의 핵심 교리를 공부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임의 마지막 부분,
995 즉 이 보고서의 초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불확실하고 도전적인 미래를
996 맞이하며 장로교인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하여 요점을
997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맨 앞 부분의 “신학적 반영”은 성경에 근거한 믿음,
998 기본적인 크리스찬과 개혁신앙의 가르침, 그리고 참된 의미와 진리를 갈급해 하는
999 이 세상에서 현대의 신자들이 믿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재 확인
1000 하였습니다.

1001 그러나, 신학적 반영이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적인 선언이 되고자 하는 의도는
1002 없으며, 새로운 신앙고백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1003 전문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의 배경과 시각을
1004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출되어, 그 공동체에서 했던 작업입니다. 많은
1005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그렇게 많은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것은
1006 바라건대 교회에 큰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것은
1007 우리를 나누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신학적 반영”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은 그 중의
1008 일부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첨부하기를 원할 것 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권합니다.
1009 우리는 “신학적 반영”이 완성된 무오한 문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1010 사람들로 구성된 무리들이 기본적인 신학적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소중한 것을
1011 발견했던 것과 같은 경험을 추구하는 그룹의 출발점으로 공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012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추정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1013 교회의 선교를, 그리고 다른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가를 귀담아

1014 듣는 것은 다른 어느 것 보다도 우리의 분별력과 상호 이해를 깊게 만드는데
1015 기여했습니다.

1016 **4. 교회의 평화, 일치, 순결을 위한 신학 위원회는 217 차 (2006) 총회가**
1017 **총회 사무국 위원회와 각 치리기관들의 회의를 계획하고 사회하는**
1018 **사람들에게 특별히 잠재적으로 분열적인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 의사결정에**
1019 **앞서 분별을 위한 대안적 형태를 사용하는 일을 추구 할 것을 강권하도록**
1020 **권고합니다.**

1021

1022

이유

1023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는 “도구와 과정”의 또 다른 요소는 본 위원회가 협의를
1024 가지면서 사용하였던 다양한 분별의 방법과 공통의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이러한
1025 방법들은, 서로 반대하는 편들이 자신들의 주장은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1026 약화시키는 토론의 방법과는 벗어난 것입니다. 분별을 함에 있어서, 교회 멤버들은
1027 옵션들을 만들어내고 무게를 갖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자기 주장은 요청에
1028 의하여 보완 됩니다 (Advocacy is complemented by inquiry).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1029 분별할 뿐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합니다. 이러한 방법은투표를
1030 하기 전에 “위원회 전체” 라는 Robert’s Rules of Order 라는 양식 아래에서
1031 사용됩니다 [미국장로교의 의사결정의 주된 골격]. 본 위원회가 통찰력과 이해와
1032 그리스도 안에서 응집력을 추구하면서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부차적인 방법들은
1033 “Discernment and Decision-Making” 이라는 곳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웹
1034 사이트에서 발견될 수 있는 토론 자료중의 하나이며, 위원회가 만드는 비디오
1035 자료에 있으며, 추가적인 자료들은 우리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1036 이러한 접근과 방법을 통하여 많은 것을 얻었던 위원회는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1037 강력하게 추천 합니다. 그러한 방법들은 위원회와 같은 작은 그룹의 활동과도 쉽게
1038 접목이 가능합니다. 그것들은 또한 커다란 의사결정 모임들에 의해 사용될 수도
1039 있습니다. 위에 열거한 자료들에 보면, 큰 모임을 포함하여 어떻게 토의하는 모든
1040 모임들이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이러한 차선책을 접목 시킬수 있는가의 예들이
1041 나와 있습니다.

1042 **5.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위원회는 제 217 차 총회 (2006) 에**
1043 **다음과 같은 규례서 G-6.0108 의 성경의 권위적인 해석을 승인하여 줄 것을**
1044 **권고 합니다.**

1045 **a.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의 정치형태는 안수와 취임에 있어서**
1046 **성경적이며 헌법적인 기준이 될 것을 확인한다.**

1082 3.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들과 상급 치리기관은 안수 과정에서 서로 협력자가
1083 됩니다. 상급 치리기관은 하급 기관의 결정을 감독합니다. 안수와 취임을 행하는
1084 기관은 직분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협력관계는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1085 요구하고 있습니다.

1086 왜 권위적인 해석이 필요한가?

1087 권위적인 해석의 기능은 규례서에 나오는 잠재적으로 모호한 단어들과 문장을
1088 명확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줄 1228 참조)

1089 G-6.0108 은 규례서에 1983 년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후보들로 하여금
1090 신앙고백서와 정치형태에 나온대로 개혁신앙의 전통과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 (G-
1091 6.0108a, 첫번 문장) 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는 기관은 교회의
1092 기준들을 함부로 만들수 없고 그들 자신의 기준을 발표할 수도 없다. G-6.0108 또한
1093 순수함을 갖고 그 기준들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1094 해석함에 일정의 범위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안수와 취임을 행하는
1095 기관에서 후보가 이러한 기준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 했는지를 결정할 것을
1096 요구하고 있고 (G-6.0108a, 둘째 줄), 그리고 “기준”과 “근본”의 중요한 차이점을
1097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98 “기준”은 속성상 갈망하는 것 입니다. 아무도 그것에 완전하게 맞추어 살 수는
1099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G-6.0108 은 중요하지 않은 면에서의 “이탈”을 허용
1100 합니다). G-6.0108b (셋째줄) 에 따르면, “근본”은 안수를 위하여 안수하는 기관에서
1101 함부로 정할 수 없는 신앙과 정치에 관한 사항들 입니다. 근본적인 교리는
1102 개혁교단이 따르는 크리스찬 믿음의 범위 안에서 한 개인의 믿음에 필요한 것
1103 입니다. 근본적인 정치는 개혁교단이 따르는 교회정치의 범위 안에서 안수 받는
1104 사람의 봉사에 필요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삶은 개혁교단이 따르는 크리스찬의
1105 제자도의 범위 안에서 한 개인의 삶에 요구하는 것 입니다.

1106 최근에는, G-6.0108 과 안수에 관한 규례서의 다른 부분들과의 관계가
1107 불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에서는 헌법이 그들에게
1108 교회 전체와 관련된 어떠한 기준들에 관하여 감독하고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1109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은 모든 선출된 제직들에게 적용될 근본적인
1110 기준들을 변형하고 정수해서 자신들의 것을 채택할 것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1111 해석가들은, 성적 자세를 규제하는 것과 같은 헌법의 조항들이 모든 경우의 안수의
1112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 안수/취임 기관의 모든 권리를 무효화 시킨다고 주장하기도
1113 합니다.

1114 이 권위적인 해석은 G-6.0108 에 담긴 지혜들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위와
1115 같은 모든 혼동스런 점들을 다루면서, 주요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원리들을 확고히
1116 붙잡는데, 이것은 교회 전체에 의하여 세워지는 필요한 기준으로서, 직분을 받기에
1117 합당한 여부를 결정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수하고 취임하는 기관에 의하여

1118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권위적인 해석이 안수와 취임과 관련된 모든 혼동들을
1119 없앨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1120 믿습니다.

1121 *새로 제안된 권위적 해석의 새로운 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122 제안된 권위적 해석에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사실, G-6.0108 과 이 해석은 모두,
1123 지난 장에서 보여준 것 처럼, 과거에 건설적인 균형과 긴장을 유지했던 전통적인
1124 원리들을 재강조하고 있습니다.

1125 * *교회 전체의 권한이 기준을 세우는 사실을 확인함.* 이 권한은 1729 년,
1126 총회가 웨스트민스터 기준을 모든 성직자를 위한 고백적 기준으로
1127 채택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확립되고 이 권위적인 해석으로
1128 확인된 원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제안한, 안수하고 취임을 집행하는
1129 기관이 직접 만든, “지역적 선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1130 새로운 것일 것이며, 이것은 비장로교적일 것 입니다.

1131 * *권위적 해석은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들의 전통적인 책임을 또한*
1132 *강조합니다.* 제직으로 선출된 사람들은 신앙과 정치의 근본을 따를 것을
1133 선언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질 수
1134 있습니다. 안수하고 취임하는 기관들은 기준들을 적용할 의무가 있고 또
1135 안수받는 직분을 위한 절대적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책임이
1136 있습니다. 이 두가지 원리는 1729 년, 목사들이 웨스트민스터 기준의
1137 조항들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양심의 가책 선언” - 당시의 언어)
1138 기회가 주어지고 안수하는 기관은 “양심의 가책” 조항이 절대적
1139 교리인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았을 때에 확립된 것입니다.

1140 * *권위적 해석은, 안수와 취임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상위 처리기관의*
1141 *권위를 강조하는데, 만약 항의가 들어오면(안수)심사가 법적으로 또*
1142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와, 절대적인 요소들이 정당하게 다루어 졌는지를*
1143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을 채택하고 총회를 시작한 1789 년
1144 때부터 시작된 장로교 전통의 하나입니다.

1145 전통적인 원리들을 강조함으로, 그러나 권위적인 해석은 현재의 안수 관례에
1146 적어도 두가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147 * *비록 현재의 관례들이 당회들 마다, 노회들 마다 서로 다른 점이 있다*
1148 *하더라도, 종종 안수 대상자의 신앙, 삶, 은사, 교회의 정치를 기꺼이 따름,*
1149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심사함에 있어서 엄격함을 놓치는 경우를 보게*
1150 *됩니다.* *권위적 해석은 안수와 취임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신앙, 삶의 자세,*
1151 *그리고 기준을 적용하며 근본에 헌신하는가를 통하여 안수대상자를*
1152 *심사하는 의무를 강화시켜 줍니다.*

1153 * *권위적 해석은 또한 역사에 근거를 두었지만 오늘날의 관례에서 빠진 G-*
1154 *6.0108 의 요소를 강화합니다.* G-6.0108 은 “교리와 훈련과 정치”에 관련된

1155 사항에서 양심의 가책(주저함)을 허락했던 1729 년과 같은 수준에서,
 1156 “신앙과 정치” - 신앙과 삶 - 을 놓고 있습니다.
 1157 오랫동안, 모든 행동과 정치의 사항에서 요구되는 교리와 엄격함에서
 1158 유연함이 허락 되면서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상으로,
 1159 이것은 고백들과 그들이 해석하는 성경보다는 정치형태에 많은 권한을
 1160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안된 권위적 해석은 믿음과 행동이 항상
 1161 관련 있다고 믿는 개혁신교단의 신학적 통찰력에 기초하는 균형을 회복하게
 1162 됩니다. 신앙은 단순한 정신적인 동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1163 살아가는 삶의 유형입니다. 신앙의 시험과 열매는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1164 고쳐지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안수 대상자는 신앙과 함께 정치와 삶의
 1165 중요한 요소들에 반드시 순응해야 합니다. 안수와 취임을 행하는 기관은
 1166 그 기관이 생각할 때 중요치 않다고 여기는 신앙과 행동의 부분에서
 1167 기준을 적용하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168 한마디로 말하여, 제안된 권위적 해석은 혁신을 가져오지는 않지만, 교회의
 1169 직분의 안수와 취임과 관련되어 오랫동안 세워진 의사결정의 장로교 원리들을 다시
 1170 찾고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1171 *새로 제안된 권위적 해석의 새로운 점이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1172 우리가 제안하는 권위적 해석은, 그렇게 많은 과거의 장로교의 논쟁이 저지른
 1173 것과 같은, 안수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교회 분쟁의 헌법적인 원리들과
 1174 의사결정 과정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이슈들의
 1175 합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안수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구조를
 1176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문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교회
 1177 직분을 위한 장로교의 기준은 아주 이상적이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것 - 성경에
 1178 대하여 절대적 순종 - 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는 완전한 신앙과 삶으로부터 어느정도
 1179 이탈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완전한 안수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180 안수/취임을 집행하는 기관은, 모든 경우에, 어떠한 이탈을 용납할 것이며, 어떤
 1181 것들이 신앙과 삶의 중요한 요소로서 타협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가를 결정해야
 1182 합니다. 동시에, 노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관련과 책임을
 1183 맡고있는 안수/취임을 집행하는 기관은 이러한 타락한 인간들이 스스로의 경각심과
 1184 헌신과 신실한 목회를 행할 그릇이 되는지를 판단할 책임이 있습니다.
 1185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제안된 해석이 안수와
 1186 관련되어 최근 갈등의 초점이 되고있는 여러 문제들 - 안수 과정에서 사용될 신학적
 1187 기준, G-6.0106b 의 적용, 각 치리기관들의 권위, 그리고 권위적 해석의 상태 - 에게
 1188 어떠한 영향을 끼칠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189 * **신학적 기준:** 제안된 권위적 해석은 이미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1190 강조할 뿐입니다. 안수 대상자를 성경의 기준과 신앙 고백과 정치형태에
 1191 따라서 심사합니다. 안수와 취임을 행하는 기관은 교회 전체에 이미
 1192 존재하는 기준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후보생들에게 적용될 추가적인
 1193 기준들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권위적 해석은 더 나아가 안수
 1194 대상자가 신앙과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을 받아 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할
 1195 안수와 취임을 행하는 기관들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1196 후보자가 개혁신당의 신앙과 정치를 심사하는 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1197 중요한 요소들로 받아 들이지 못한다면, 안수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1198 * **G-6.0101b:** 1997년에 헌법에 추가된 G-6.0106b의 기준들과 그 관심사들을
 1199 다루는 권위적 해석을 포함하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안수 기준들을
 1200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제안된 G-6.0108의 권위적 해석의 의도는 아닙니다.³⁶
 1201 본 위원회는 G-6.0106b의 쟁점이 되고있는 성과 안수에 관한 문제를
 1202 포함해서 우리에게 하달된 명령에 담긴 이슈들에 관한 판결을 내리라는
 1203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본 위원회는 그러한 이슈들을
 1204 다루면서 교회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라는 지시를
 1205 받았습니니다. 본 위원회는 G-6.0106b를 두고 논쟁들이 수년동안 계속될
 1206 것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제안하는 권위적 해석은
 1207 교회로 하여금 토론을 계속 하면서 성경과 신학적 원리에 따르는 평화와
 1208 일치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고안 되었습니다.

1209 제안된 해석은 안수와 취임을 행하는 기관들이 교회의 직분자로
 1210 선출된 사람들에 관하여 교리적인 시각과 삶의 모습을 신중하게 심사할
 1211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수와 취임을 집행하는 기관의 판단이
 1212 안수 대상자가 삶의 양식의 기준인 G-6.0106b 규정에서 이탈했다면,
 1213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은 이러한 이탈이 신앙과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

³⁶ G-6.0106 은사와 요구

“a. 교회 내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자들 곧 집사, 장로,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에게 하나님은 각기 그들의 임무 수행에 적절한 은사를 주신다. 타고났든 후천적이든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소유한 것 외에도 특별한 목회에 임직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믿음, 헌신적 제자직, 그리고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그들의 생활양식은 교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증하는 생활이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인정을 받아야 하며, 교회 치리회의 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교회에서 직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순복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백적 표준들에 순응하는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 이런 표준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W.4.9001),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앙고백들이 죄라고 지칭하는 일을 스스로 인지하고서도 그 행위를 회개하기 거부하는 사람들은 집사들이나 장로들이나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들로 안수와 취임과 또는 안수나 취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214 여기였는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후보자는 안수를
1215 받을 수 없습니다.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에서 후보자의 신앙고백과
1216 삶의 자세의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탈을 심사한 후에도, 만약 이탈이
1217 개혁교단의 신앙과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218 그 안수를 막을 수 없다 (당사자가 안수를 받기에 요구되는 것이
1219 없을지라도). 현재로서는,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1220 그 앞에 놓인 모든 증거 자료를 가지고 안수나 취임 혹은 안수와 취임을
1221 결정할 수 있습니다.

1222 * *결정에 대한 재고*: 이 해석은 상급 치리기관이 하급 치리기관을
1223 감독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누가 안수에 적합한가와
1224 안수 대상자들이 신앙과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에 순복하는가에 대한
1225 결정들은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에 속한 것이지만, 안수하는 기관이
1226 안수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질문들과 씨름하였는가를 포함하는
1227 모든 임무를 제대로 감당하였는가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사법
1228 전권위원회의 판결 전례는 후보자의 심사는 분별있고, 책임 있으며,
1229 신중하여 그가 중요한 요소들에 순복하는지를 완전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1230 못박고 있습니다. 이 권위적 해석은 판결 전례뿐 아니라 전례의 정신과도
1231 맞는 것입니다.

1232 * *권위적 해석의 상태*: 제안된 권위적 해석은 많은 혼동을 불러 일으킨
1233 문제를 명확하게 해 주는데, 그것은 안수 기준의 권위적 해석이 어떻게
1234 기능하는가입니다. 장로교 헌법은 총회와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에게
1235 헌법 조항들의 권위적 해석을 발표할 권한을 주었고, 그러한 해석은 하급
1236 치리기관에 구속력이 있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례서, G-
1237 13.0112, G-13.0103r). 안수의 기준은 헌법적인 조항이므로 권위적인
1238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총회의 상임 사법 전권위원회는 하급
1239 치리기관이 그들의 헌법에 명시된 책임을 수행할 때 이를 상급
1240 치리기관이 막을 수 없다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원리를
1241 종합해서, 만약 안수 기준이 권위적으로 해석된다면, (1) 안수/취임을
1242 집행하는 기관은 기준을 해석함에 있어 총회와 그 상임 사법
1243 전권위원회가 권위적으로 지시하는대로 따라야 하며, 그리고 (2)
1244 안수/취임을 집행하는 기관은 어느 안수 대상자가 개혁교회 신앙과
1245 정치적의 중요한 요소들로부터 이탈하였는가 결정하고, 그 안수를 막을 수
1246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권위적 해석은 어떻게 안수/취임을
1247 행하는 기관이 기준을 해석하는가를 구속하지만, 그것은 어떤 사항들이
1248 중요한 요소들이며 중요하지 않은 요소들로부터의 이탈이 후보자가
1249 안수를 받거나 취임을 하는데에 걸림돌이 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가에
1250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권한을 뒤집을 수 는 없습니다.

1251 우리는 제안된 권위적 해석을 적용할 때의 실제적인 효과는 긍정적인 것이라고
1252 믿습니다. 교회 전체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교회의 일치와 순결에
1253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이 직분의 기준과
1254 적합성에 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1255 평화에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처는 본장 (5 장) 에
1256 나오는 제안된 권위적 해석이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한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1257 *모든 당사자들은 서로의 결정을 존중함에 서로를 능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1258 *기울이는데, 이는 후보를 심사하는 안수/취임의 치리기관과 총회의, 기준에*
1259 *나온대로 노회들의 승인을 거친, 추정적인 지혜에 따라서 한다.* 제안된 권위적
1260 해석은 직분을 맡는 사람의 적합성에 관한 기준을 버리거나 판단을 뒤집는 면허증과
1261 같은 것이 아닙니다.

1262 틀림없이, 이 조처는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당회와 노회에서 격렬한 토론과
1263 반대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 그룹들은, 모임
1264 때마다 회원들이 바뀌고 반대편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력을 경험하게 되는 총회와
1265 같은 큰 모임과는 달리, 갈등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질 것 입니다.
1266 이미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들의 결정에 많은 변수가 있으며; 어느 후보자도
1267 교회의 기준에 완전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심사의 과정과
1268 기준의 적용에 새로운 강조를 강화하는 이 권위적 해석은 안수의 적합성에 관하여
1269 더 신중하고 균형잡힌 결정들로 인도함으로써, 교회의 순결을 증진하고 지도자들의
1270 자격을 향상할 것입니다.

1271 *마지막으로, 제안된 권위적 해석이 장래에 어떠한 기준이 생긴다 하더라도*
1272 *평화와 일치와 순결의 목적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의
1273 어떤 기준, 특히 G-6.0106b, 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
1274 되거나, 다른 것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안수/취임을 행하는 기관이 케이스 마다
1275 기준을 적용하는 권리를 강조하는 이 제안은 앞으로 계속 안수를 행하는 기관이
1276 신앙고백서와 규례서의 정치형태에 제정된 개혁교단의 신앙과 삶의 중요한
1277 요소에서 떠났다고 인정되는 후보자들에 대하여 안수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1278 보장해 줄 것입니다.

1279 우리는 여기에 나온 권위적 해석이 많은 오늘 교회의 긴급한 필요에 답을 주며
1280 앞으로도 다가오는 많은 세월 가운데 그러할 것이라고 믿으며 제출합니다. 동시에,
1281 우리는 특정한 이슈에 관하여 공동의 믿음의 고백과 깊은 차이점을 갖고
1282 살아가야하는 도전 앞에서 완벽한 답이 없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1283 오늘 현실의 분쟁적인 문제에 대하여 한편이나 다른편을 대신하여 판결하지 않고

1284 추천하지 않는 우리에게 대하여 실망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가 폭
1285 넓고 멀리까지 퍼지어, 분쟁의 한 복판에서도 교회가 복음대로 기쁘고 생산적인
1286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위적
1287 해석을 포함하는 우리의 권고들이 다음의 조항을 다루어 줄 것을 믿습니다.

1288 **6. 만약 제 217 차 총회 (2006) 가 권고 5 번을 승인한다면, 교회의 평화와**
1289 **일치와 순결을 위한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들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290 **a. 제 217 차 총회 (2006) 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권위적 해석을 승인하지**
1291 **않을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권위적 해석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며, 노회에**
1292 **그리스도론, 성경의 해석, 절대적으로 중요한 교리, 그리고 성과 안수를**
1293 **포함하는 본 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오는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교단적인 정책의**
1294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어떠한 헌법적인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할 것을 알려야**
1295 **합니다.**

1296 **b.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경적 의무 - 즉 마태복음 18:15-17**
1297 **과 마태복음 5:23-25 의 기록 - 를 지키며, 규례서의 권징조항대로 “분쟁없이**
1298 **견해 차이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조절하기 위해” (D-1.0103) 기도하고**
1299 **의도적으로 노력하며, 교회의 목적과 순결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모든 노력이**
1300 **수포로 돌아갔을 때 전권위원회와 사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1301 이유

1302 우리가 제안한 것들이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촉진 시키는데 얼마나
1303 효과적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슈에 관한 그들의 개인적인 입장에 상관없이
1304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는 위원회의 권고들이 성령의 분별 안에서 고찰되어지고
1305 또 그것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306 비록 위원회가 위원회의 임무에 기록된 총회가 안고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1307 장로교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재확인하였지만, 문제를 해결
1308 하려면 헌법 수정이 필요한 논쟁적인 이슈들에 관하여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1309 또 이보고서가 보내어질 총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들에 관하여 깊은 논쟁을
1310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권위적 해석을 시험해
1311 보기 전에 G-6.0106 조항이나 분쟁적인 문제들에 관련된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면 큰
1312 혼란과 더 큰 갈등을 불러 오리라고 믿습니다. 시험과 동시에 분별의 분위기를
1313 조장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개인적인 관계, 묵상,
1314 그리고 화해는 행정적, 사법적인 활동이 고려되기 전에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

1315 7.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위한 위원회는 제 217 차 총회 (2006) 에게
1316 이 보고서는 다음의 답변임을 알립니다. 헌의안 01-33, 총대들의 결의안 00-28,
1317 01-23, 그리고 안건 (Item) 02-10.

1318 이유

1319 지난번 총회에 의하여 위원회에 추천되었던 이러한 사항들은 이 보고서에
1320 의하여 답하여졌습니다.

1321 VI. 마지막 말씀

1322 이 보고서 전문은 교회에 분별의 때가 다가왔다는 전제 아래에서 만들어졌는데,
1323 바로 이것이 위원회가 권고하는 바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것을 권고합니다.

- 1324 * 교회가 연합 되고 내부적인 결속을 강화할 것을 권합니다.
- 1325 * 장로교인들이 분별을 위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지지할 것을 권합니다.
- 1326 * 우리의 크리스찬 정체성의 추구의 결과인 “신학적 반영”을 드립니다.
- 1327 * 치리기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기 위하여 다양한
1328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 1329 * 분별을 중심에 놓는 안수 결정의 전통적인 방법을 권고 합니다.
- 1330 * 이러한 조처들이 승인된다면, 헌법을 수정하는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1331 교회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을
1332 추구합니다.

1333 분별의 형태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은 문제를 직접 대결하는 오늘의 유형보다는
1334 훨씬 더 건설적이고 덜 어렵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의 목적은
1335 다른 이슈들로 넘어가기 위해 중요한 이슈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편해지기 위해
1336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적은 교회의 존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1337 통하여 주어진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아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고
1338 섬기도록 위임받은 세상을 향하여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보여주는 것 입니다.

1339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고있는 은사에 충만하게 살기위한
1340 교단적인 노력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 처럼 우리의 진정한 선교를 우회하는
1341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한 우리의 부름의 핵심인 것입니다.
1342 죽으시기 전날 밤, 복음서에 기록된 가장 긴 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1343 장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과 하나님 앞에서 문제 많은 교회를 세우시기
1344 위하여 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1345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1346 믿게 하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줄
1347 알리라” (요한 17:21; 요한 13:35). 세상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알기위해 어떻게
1348 도전 받아야 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들을 뿐 아니라, 서로
1349 사랑하는 가운데 구체화되는 공동체로서의 증거를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1350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 꼭 같거나 모두다 동의해야
1351 한다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1352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진리를 위하여 서로를 설득해야
1353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직업과 상황이 이렇게 서로 다를 때에, 고통과
1354 불의로 인하여 얽혀져있는 세상에 거룩함과 봉사를 통하여, 서로를 지원하고
1355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다룬다 하더라도,
1356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를 분열시킬 위험이 있는 불화 가운데서도
1357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점 때문에 죽이려고 할
1358 바로 그 때에도, 그러한 증거를 위하여 살고 일하는 교회는 양분 되어있는 세상의
1359 눈길을 끌 것입니다. 신적인 사랑 외에 어떤 것이 목적과 시각에서 우리와 다르고,
1360 심지어 정반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1361 본 위원회는 확신하기를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논쟁을 다룸에 있어서
1362 우리 미국장로교와 다른 교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됨은 우리가 다
1363 동의하면서, 갈등이 없이 꼭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의 기도를
1364 들으면서, 모든 교인들은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속성 -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365 가지적이며 독특한 관계를 가질수 있는 능력 - 은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와
1366 능력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게 됩니다.

1367
1368 코멘트 (Comment): 이 제안의 성공 여부는 교회의 모든 표준들을 진지하게
1369 취급하며 이 표준들을 시취 과정에 엄격하게 적용하는 모든 치리 기관들에 달려있다.
1370 모든 치리기관들이 이 일이 이루어 지는 것을 보증하는 자료들을 개발 할 것을
1371 촉구한다.

학습 안내

소개

이 간단한 지침은 제 217차 총회에 보내진 위원회의 보고서인 “분별의 때”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반영을 원하는 모임들은 인도자가 있거나 없거나 이 지침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총회 때까지는 그들의 보고서에 따라서 좀더 깊이있는 교재를 개발하리라고 예상 합니다. 추가적인 자료들은 이미 위원회의 웹 사이트 www.pcusa.org/peaceunitypurity 에 있습니다.

이 토론을 위하여 참석자는 토론전에 이 보고서를 먼저 읽었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의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표현에서부터 뿌리 깊은 의심에 이르기까지의 모임의 여러 참석자들 사이에서의 개인의 나눔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석자들이 솔직하고 자유롭게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그룹은 토론하기 전에 서로를 알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위원회의 첫번 비디오 “평화와 일치와 순결을 추구하면서” 의 한 부분인 “Fostering Community” 와, 웹 사이트에 있는 “Resources for Fostering Community and Dialogue” 라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룹으로서 시간을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하여 일찍 결정 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번에 보고서 전체를 토의할 수도 있고 여섯 번에 걸쳐 한 장씩 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십시오.

다음의 질문들을 토의하면서, 위의 자료들에 나와 있는대로 상대방의 초청이나 기도하면서 경청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것을 고려 하십시오. 만약,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5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는 작은 그룹들로 나누도록 하십시오. 만약 각 소그룹마다 토의 내용의 중요점들을 전체 그룹에서 나누기를 원하면 각 소그룹에게 큰 종이와 매직펜을 주십시오.

I 장: 서문: 이 보고서의 신학적 근거

서문에 나오는 신학적 반영은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로 구성된 장로교인 모임이 크리스찬 신앙과 미국장로교가 가르치는 개혁신학과 급속하게 변하는 세상에서의 교회의 선교의 핵심적인 신념을 한 목소리로 확인 하였습니다.

- * 신학적 반영이 장로교인으로서 당신의 핵심적인 신념과는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 * 장로교인의 정체성에 관하여 무엇이 놀랍습니까?

II 장: 신학 위원회의 사역의 계획과 진행 과정

우리가 같이 지냈던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공통적 확신이 생겼는데: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미국장로교에 나타난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줄 386-388).

- * (줄 318-340)을 참조하세요. 당신은 우리가 여기 나온 설명들 중의 하나로 주님의 몸을 서로 상하게 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당신의 믿음의 공동체에서, 당신이 믿는 것과 당신이 누구라는 것과 당신과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어떻게 진실할 수 있겠습니까?

III 장: 신학 위원회가 다루는 이슈들

A. 그리스도론

우리는 “예수는 주” 라는 고백과 다른 전통적인 그리스도론적 방법들이 오늘날의 신앙과 제자도를 형성하는 힘이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줄 446-447)

- * 예수가 주라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B. 성경의 권위와 해석

... 성경이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서 형태를 만들고 변화시킨다. (줄 506-507)

- * 다른 사람들과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의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깊어 졌습니까?

C. 성(性)과 안수

...더 나아가, 우리는 성과 안수와 동성의 계약적 관계에 관한 시각은 강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시각을 갖고있는 우리의 동료 위원들은 진실되고, 신실하며,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 여러 세대 동안 교회에게 주어진 성과 안수와 동성의 계약적 관계에 대한 질문의 “예/아니오” 형태에 대신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건설적인 답을 교회가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줄 602-607)

- * 당신의 이 보고서의 결론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 하십니까?

IV 장: 평화, 일치, 그리고 순결을 위한 자료들

A.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 교회 치리에 관한 개혁 신학

- * 피차간의 인내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회가 만든 (줄 656-664) 를 참조 하십시오. 상호간의 인내에서 무엇을 당신을 성장하게 하였습니까?

B. 건설적인 업무(약속)을 위한 자료: 장로교 정치

- * (줄 698) 의 균형의 사항들을 참조하신후, 당신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헤쳐 나갑니까?

C. 건설적인 업무(약속)을 위한 자료: 공동체적 분별

공동체적 분별은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자료들을 모으며 기도를 통한 묵상과 솔직한 질문들과 경청하는 자세와 옵션들의 중요성을 다같이 의논하는 것을 동반 합니다. (줄 850-852)

- * 교회의 삶에서 공동체적 분별이 가장 유용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D. 정치와 진행 과정에 관한 결론

위원회는 *교회의 교인들과 여러 단체들로서, 그들은 모임들 사이에서 그룹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깊이하며, 사랑으로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새로운 방법들의 개척자이었다*는 면에서 재차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줄 878-881)

- * 당신의 교회에서 다리를 놓고 상호간의 깊은 이해를 돕는 어떠한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V 장: 권고의 말씀

- * 보고서의 (줄 920-1313) 을 참조하시면서, 당신은 보고서의 결론에서부터 어떻게 권고들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 위원회는 각각의 권고를 별개로 고려하지 않고 7 개의 권고들을 한꺼번에 발표하고 투표에 부쳤습니다. 권고들을 다같이 고려하는 것과 각각 고려하는 것 사이의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 * 이러한 권고들이 교회의 평화와 일치와 순결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VI 장: 마지막 말씀

- * 보고서의 마지막 두 단락 (줄 1347-1363)을 읽으신 후, 당신은 그들의 결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 미국장로교에서 분별의 때를 위한 당신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